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日本知識人들의 韓國觀

— 歷史的 傳統을 中心으로 —

— Japanese Intellectual's Image of Korea  
in Historical Perspective —

研究執筆責任 金 榮 作

(略歷) 서울大 外交學科 卒  
東京大 大學院 國際關係論科 卒  
(政治學 博士)  
國際基督教大學 助教授  
現 東京大 國際關係論科 講師

刊行責任 趙 建 植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 要 約 〉

近代以前の 日本人들의 韓国觀의 傳統中에는 江戸時代の 韓国觀에 나타나듯이 韓国人이나 韓国文化에 대한 尊敬이나 好感을 나타내는 것도 있었다. 이것은 東亜細亞의 文明의 中心이 中華大陸에 있었던 時期에 儒敎文明圈의 가장 辺境에 있었던 日本이 辺境優越文明國이었던 韓國에 대한 「해바라기現象」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看過할 수 없는 것은 日本의 古代國家 形成期로부터 이미 韓國에 대한 우월감과 敬畏감이 形成되고 있었다는 點이다. 특히 이러한 日本人들의 對韓觀의 問題點은 그것이 단순한 敬畏감이나 우월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日本의 韓國에 對한 侵略과 支配를 고취하거나 正當化하는 것이었다는 點이다. 이러한 傾向은 江戸時代의 國學者들에 依해 強化되었고, 明治以後에는 從來의 神話나 傳說에 立脚한 日本의 建國理念에 근거한 假設的인 우월의식에다, 西歐化에 一步 앞섰다는 文明論的 優越意識까지 添加되었다. 따라서 明治以前の 對韓觀에는, 韓國에 對한 우월의식은 주로 軍事的인 側面에서의 우월감이 主流였고, 反面 文化的인 側面에서는 韓國에 對한 尊敬心등이 엿보여 軍事的 우월감과 文化的 劣等感 사이의 葛藤이 있었으나, 明治以後에는 그러한 葛藤마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本稿의 中心 題-마인 明治以後의 各種 形態의 對韓觀은 各各

그 立論의 根拠나 形態는 다르나 모두가 征韓論의 韓國觀에 歸着하는 것이었다. 近代以後, 最初의 對韓觀이었던 征韓論은 「內亂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밖으로 돌리는 遠略」으로 삼고 아울러 「海外 雄飛」를 꾀하기 爲한 侵略의 對象으로서의 韓國觀이었다. 소위 非征韓派의 韓國觀도 征韓派의 韓國觀과 本質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征韓派와 非征韓派의 差異는 다만 征韓의 時期와 征韓의 主導權을 누가 잡느냐 하는 日本國內政治上의 對立에 지나지 않았다.

또 自由民權論者들의 對韓觀 역시 本質적으로 征韓的이었다. 그것은 自由民權運動이 1873年 征韓論爭에서 敗退한 征韓派에 의해 추진된 운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當然한 歸結이었다. 自由民權 左派안에 一時的으로 韓國과의 連帶意識이 싹트는 것 같았으나, 이 또한 征韓論的 韓國觀을 完全히 脫皮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1881年以後 日本에서의 自由民權운동이 凋落하기 始作할 무렵, 1882年 韓國에서 壬午軍亂이 일어나자 이를 轉期로 하여 韓國에의 侵略을 肯定하는 思想으로 復歸하고 말았다.

日本の 文明開化의 先覺者였던 福澤諭吉은 近代以後 日本人들의 意識구조와 對外觀의 根底를 마련한 사람이었다.

그의 對韓觀과 對亞細亞觀을 集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1885년에 그가 發表한 脫亞論인데, 그는 이미 1881年 무렵부터 韓國과 淸國을 同等한 國家로는 보지 않고 「武로 보호하고 文으로 誘導할」 나라로 보고 있었으며, 그가 韓國의 開化派와 接觸한 目的과 意圖도

日本政府의 「兵略政略」에 의한 國權擴張을 在野에서 「文權」으로 뒷받침하자는 것이었다. 1885年の 脱亞論에 이르러서는 韓國과 中國을 「惡友」로 規定하고, 日本自身이 “惡名”을 免하기 爲하여 「마음에서부터 亞細亞 東方의 惡友를 사절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西洋의 帝國主義列強의 例에 따라 韓國과 中國을 区分하여야 하며, 韓國이 強大文明國의 保護를 받아 滅亡할 것을 祝賀한다고 하였다. 福沢諭吉의 「脱亞論」은 이와 같이 文明의 美名下에 「侵亞」를 主張하고, 正當化하는 것이었다.

또한 福沢과는 正反對로 表面的으로는 脱亞가 아닌 “連亞” 즉 韓·日 兩國의 「大東國」에로의 合邦을 주장한 樽井藤吉의 「大東合邦論」도 本質的으로는 連帶意識을 假裝한 征韓論이었으며, 「大東合邦論」의 이러한 性格은 1910年 韓·日 合邦直前に 出刊된 「大東合邦論」의 再版에서 樽井 自身에 의해 露呈되었다.

近代以後 日本人들의 韓國觀 中에는, 이외에도 明治末年의 社會主義者들의 對韓觀, 大正데모크라시 時期의 人道主義者들의 對韓觀, 그리고 韓·日合邦論에 강화된 大亞細亞主義, 日鮮同祖論, 滿鮮史觀 등등이 있다. 이들 中에서 大正期의 人道主義者들의 對韓觀 같은 것은 과거 江戸時代의 儒學者들에 의한 韓國의 文化와 學問에 대한 尊敬과 호감, 그리고 一時的으로나마 自由民權左派안에 咲뒀던 連帶의 식의 傳統을 이어 받아 韓國의 藝術을 通해 韓國民族과 文化를 再發見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好意的, 友好的 對韓觀은 극히 부분적인 少數人의 對韓觀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第2次大戦後의 日本人들의 對韓觀의 「스테레오타이프」를 보면,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否定的이다. 1967年 조사보고에 의하면 韓國人은 日本人들이 가장 싫어하는 國民(13개 民族 또는 國民中 12位인데 黑人을 除外하면 最下位였다)으로 나타났고, 日本人들에게 가장 拒否度가 높고 受容度가 낮았다. 또 1978年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韓國人은 15개국 國民中 12位를 占하여 역시 싫어하는 國民에 屬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日會談以後의 兩國間의 교류에 의해 日本人들의 韓國觀이 상대적으로 약간 好轉되고 있는 것 같으나, 全体的으로 보아 韓國은 「好戰的」이고 「攻撃的」이며 「自由가 없는」 「獨裁國家」라는 「이미지」이다.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보다 「韓國」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보다 否定的이며, 直接的인 接觸보다 「매스·콤」에 의한 「이미지」形成이 더욱 否定的인 것은 역시 큰 문제점이다. 1967年의 조사中 韓國人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프」 「이미지」가 ①不潔하다 ②교활하다 ③비굴하다 ④행동과 예의범절이 나쁘다 ⑤군중심리에 左右되기 쉽다 등 모두 否定的인 것들 뿐이었는데, 全体的으로 보아 第2次大戦後 오늘날에도 韓國과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가 否定的인 것은, 近代以後 日本의 對韓觀의 傳統이 모두가 韓國을 無禮하다거나 未開하다고 보아 韓國(人)에 대한 멸시판과 경멸감을 조장하고 그러한 口實下에 侵略을 고취하거나 正當化하는 것이었다는 事實과 無關하지 않다.

近代以後 日本知識人의 各種 對韓觀에 나타난 共通된 特徵은 첫째

로 日本内の 諸般 矛盾에서 생기는 「欲求不滿」을 「轉出」시킬 対象으로서 韓國(人)을 設定한데 있다. 즉 日本人에게 있어서의 韓國人은 마치 나치 政權下의 獨逸人에 대한 유대인적 存在와 마찬가지로 「Scape Goat」의 対象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日本의 危機를 극복하거나 國權을 擴張하기 爲한 侵略의 対象으로서의 韓國觀이다. 征韓論的 韓國觀은 이 兩者를 同時에 겸한 것이었다.

一般的으로 「欲求不滿」을 他에 대한 差別과 偏見으로 「轉出」시키는 行爲는 自我가 未熟하거나 不健全할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日本人들의 韓國(人)에 대한 差別과 偏見은 日本社会의 不健全性을 意味하며, 또 日本人들의 西歐人에 대한 劣等意識의 補償行爲라고도 할 수 있다.

韓·日 兩國의 참된 友好·親善과 協力關係를 爲해서는 相互偏見과 差別이 없는 友好的인 國民像을 形成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目 次

I. 問題의 所在 .....	9
II. 輿論調査에 나타난 「스테레오타이프 (stereotype)」 型의 韓國觀 .....	13
III. 韓國觀의 歷史的 傳統 (近代以後) .....	39
1. 明治維新 初期의 韓國觀 : 征韓論 .....	39
2. 壬午軍亂期 自由民權派의 韓國觀 .....	50
3. 文明開化論者의 韓國觀 : 脫亞論 .....	58
4. 소위 “連帶論者”의 韓國觀 : 樽井藤吉의 「大東合邦論」과 韓·日合邦 .....	64
IV. 맺는말	
一 韓國觀의 社會心理學的 特性과 그 問題點 .....	73
* 註 .....	84
* Résumé .....	95



## I. 問題의 所在

國際關係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局面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對外接觸面으로, 19세기 以來 흔히 外交史라고 불리워 온 政府間의 接觸 즉 外交折衝을 對象으로 한 것과, 戰爭史, 文化交流史,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政策決定過程등이 이 局面에 屬한다. 둘째는 國際關係를 財物의 生産 및 移動이라는 局面에서 파악할 수 있겠는데, 貿易史, 國際經濟史등이 이에 屬한다. 세째는 對外意識의 局面인데, 이는 어느 國民(國家)의 對外關係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基底를 이루는 것으로 外國觀 또는 外國像(國民像)으로 불리우는 것이 이에 屬한다.

勿論, 國際關係란 社會現象은 多元的·立體的인 것이어서 위의 3가지 局面에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위의 3가지 局面이 相互 峻別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므로, 國際關係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研究方法은 위의 3局面을 均衡있게 相互關連的으로 다루는 方法의 개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經驗的으로 보아 現段階에서는 國際關係를 위의 같은 3가지 局面으로 整理하여 파악하는 것이 相對的으로 타당한 것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위의 3가지 局面을 各各 對象으로 한 國際關係의 研究方法 내지는 領域의 獨自的 存在價值가 認定될 수 있다.

더우기 나라사이의 關係의 發達은 위의 세가지 局面이 조화된 均衡을 취하며 진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험적으로 보아 이들 3局面에 상당한 乖離가 있거나 심지어는 相互 葛藤的 要素가 存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本稿의 対象이 되는 韓·日 兩國의 關係가 바로 그러한 代表的인 例中の 하나가 아닐까 한다.

第2次大戰의 終結로 우리 民族이 日帝의 植民地統治로부터 解放을 맞아 獨立된 大韓民國의 政府를 수립한지 30年이 넘었고, 韓·日 兩國間에 國交가 正常化된지도 이미 14年이 되었다.

그간 韓·日 兩國間에는 兩國의 政府 또는 國民間에 간헐적인 不協和音이 없지 않았으나 대체로 보아 政治·經濟面의 緊密한 協力·交流가 進行되어 왔고, 이러한 政治·經濟間의 協力·交流를 뒷받침하여 참다운 友好·協力關係를 공고히 하기 爲해 文化的인 側面에서의 交流의 必要性이 認識되어 나름대로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것도 事實인 것 같다.

그러나 韓·日 兩國의 關係를 總括하여 볼 때에, 政府 레벨의 協力關係에 비해 非政府 레벨의 協力·交流가 뒤져 있고 政治·經濟面의 協力·交流에 비해, 文化面의 交流가 빈약한 狀態에 있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인 것 같다.

특히 問題가 되는 것은 日帝時代의 植民主義的 支配·被支配 關係에 따른 有形·無形의 植民主義的 殘滓를 清算하고, 友好·平等의 原則에 立脚한 새로운 兩國關係를 정립하기로 기대된 1965年의 韓·日 國交正常化 以後에 있어서도, 韓·日 兩國 상호간에 결코

友好的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国民像(National Image)이 持續되고 있다는 点이다.

어느나라 사이를 막론하고, 相互間的 国民像의 形成은, 作用과 反作用이라는 相互作用을 하게 마련이므로, 「日本人의 韓國觀」을 論하기 爲하여는 「韓國人の 日本觀」이 아울러 문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과거의 不幸했던 支配·被支配의 關係, 바꾸어 말하면 加害者, 被害者的 關係나, 과거의 殘滓意識이 完全히 清算되지 못한 現今의 兩國關係(특히 意識面)에서 볼 때 「韓國人の 日本觀」은 主로 「日本人의 韓國觀」 내지는 對韓政策에 대한 受動的 反映의 形態를 취하는 側面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韓·日 兩國의 相互 国民像에 있어서 우선 問題가 되는 것은 「日本人의 韓國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나라 사이의 關係를 막론하고 國家間的 親善, 協力關係는 國民 相互間的 友好·親善關係 없이는 健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며, 또한 輿論과 外交의 關係에서 보더라도 輿論의 뒷받침이 없는 外交政策은 결코 安定된 것일 수 없다는 點을 고려할 때, 韓·日 兩國 國民間的 「이미지」를 偏見이 없는 健全한 것으로 만드는 일은 政府間的 協力關係 못지 않게 重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個人에 대한 「이미지」이건 國民에 대한 「이미지」이건 「이미지」(像)에는 事實에 관한(事實에 立脚한) 像(Images of fact)과, 價值에 立脚한(또는 價值에 관한) 像(Images of

Value)이 있는데 1) 事實 또는 價値와 像과의 관계는, 歷史에 있어서의 事實 또는 解釈과 歷史와의 關係와도 마찬가지로 像의 形成에 作用하는 事實이나 價値가 이를 message로서 방문하는 主体에 의해 選擇적으로 선정되게 마련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事實中에서 어느 事實이 message로서 選定되느냐에 따라 「像」의 가치가 左右되게 마련인데, 그러한 事實의 選擇과정 자체에도 選擇자의 가치관이 적지 않게 作用한다. 國民像의 形成에 있어서 이러한 役割을 하는 것이 다름아닌 message의 創造·傳達者로서의 인테리들인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이미지」의 形成 또는 變遷은 message (정보)의 전달과 撰取라는 input와 그 結果로 나타나는 output의 作用에 의해 形成되고 또는 新陳代謝 (固定化, 擴大化 또는 수정변화를 모두 포함)를 하게 마련이지만 2) 어느 國民이나 國家에 대한 「이미지」는 餘他 事物이나 個人에 대한 「이미지」에 비해, 그 形成과 變遷에 상대적으로 오랜 時日이 걸리며, 一旦 形成된 「이미지」의 變遷에는 특히 時間을 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理由中の 하나는 國民象의 形成은 그때 그때의 단편적인 message 뿐만 아니라, 神話나 伝說 특히 歷史教育등의 장구한 時日의 社會化 과정을 통하여 形成되고 傳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本稿는 위와 같은 問題의식에서 우선 日本의 一般民衆의 韓國觀의 「스테레오타이프」의 實態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韓國觀의 「스테레오타이프」의 根底를 이루고 있는 日本의 知識人の 韓國觀의 歷史的 傳統을 고찰하여 보려고 한다.

## Ⅱ. 매스·콤의 輿論調査에 나타난 「스테레오타이프 (Stereotype)」型的 韓國觀

美國의 社会心理學者 Kimball Young의 研究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어느나라 國民이건 다른 나라의 國民에 대해 「스테레오타이프」의 名稱이나 「레텔」을 붙이는 傾向이 있다. 1) 「스테레오타이프」란, 어느 集團에 對해 科學的·客觀的인 根拠도 없이 千篇一律的으로 부여된 特性을 가르키는 말이다. 2) 例를 들면 “영국사람은 理性的”이라든가 “유대인은 구두쇠”라든가 “黑人是 드럼의 리듬감을 좋아한다”든가 “한국(조선)사람은 게으름뱅이로 不潔한 民族”이라든가 하는 생각은 모두 一般化하기에는 科學的 根拠가 없는 「스테레오타이프」型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은 別問題로 하고 어느 國民에 對한 이러한 「스테레오타이프」가, 바로 그 國民에 對한 現實的인 「像」(Image)으로 作用하는 경우가 많다.

또 T. M. Newcomb에 依하면, “偏見이란 非友好的인 態度一즉, 他人이나 他集團에 對해 好意的이 아니거나 不利한 樣態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傾向” 3) 이라고 하였다. 즉, 偏見은 對象이 되는 사람이나 集團 또는 國民을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가르키는데, 이러한 偏見의 基底가 되는 것中的 하나가 바로 그 對象에 對한 「스테레오타이프」인 것이다.

社会的·文化的 实体는 論理的이거나 實驗에 依해 發見된 結果에 의해 決定되기 보다는 주로 非合理的인 信念 즉, 神話나 伝說 또는 「스테레오타이프」를 形成하고 있는 心理的인 要素에 依해 左右되는 傾向이 많다. 4) 어쨌든 「스테레오타이프」型的 「이미지」나 偏見은 그것이 非合理的인 것이기는 하나, 어느 國民의 他國民에 대한 態度를 決定하고 더 나아가서는 外交關係를 左右하는 對外意識의 基底를 이루게 된다. 「스테레오타이프」型的 國民像에 대한 研究·分析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제 本稿의 主題로 돌아가 日本人들의 韓國(人)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프」型的 「이미지」를 그들의 輿論調査에 나타난 各種 資料<sup>5)</sup>를 通해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第2次大戰後, 日本人들의 韓國觀을 比較的 体系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資料로서, 我妻 洋과 米山 俊直에 依한 日本人의 人種態度에 對한 調査研究<sup>6)</sup>가 있다. 我妻와 米山の 報告는 그들의 質問票에 応答을 해준 男·女 合計 270名으로부터의 応答에 根拠를 둔 것인데 이 調査對象者들의 年令別, 學歷別, 職業系統別 構成을 보면 各各 다음 表와 같다. 7)



第1表 被調査者年令構成

年 代	男 (人)	女 (人)	計 (人)
10 代	2	4	6
20 代	80	77	157
30 代	16	10	26
40 代	43	25	68
50 代	3	7	10
60 代	2	1	3
全 体	146	124	270

第2表 被調査者学歴構成

学 歴	男 (人)	女 (人)	計 (人)
大 学 院 卒	1		1
大 学 卒	47	15	62
大 学 生 ( 在 学 )	44	36	80
短 大 卒	3	3	6
旧制高校・高専卒	13	8	21
旧 制 中 学 卒 ( 旧 制 高 女 )	5	22	27
高 校 卒	11	17	28
中 学 校 卒	18	16	34
旧 制 高 小 卒 ( 旧 農 ・ 青 年 学 級 )	4	2	6
其 他 ( 旧 制 高 女 中 退 )		1	1
不 明		4	4
計	146	124	270

第3表 被調査者職業・階層構成

職業・階層	男 (人)	女 (人)	計 (人)
中 流 階 級	42	38	80
農 民	13	17	30
勤 勞 青 年	25	25	50
研 修 生	22	8	30
大 学 生	44	36	80

이 調査에서는 質問內容으로 제일 먼저 日本人들의 各國民 또는 民族에 대한 好・惡感情을 調査하기 爲해 다음과 같은 13個의 國民 또는 民族의 「리스트」를 열거하고 좋아하는 順序부터 번호를 써넣도록 했다.

第4表

- |             |               |
|-------------|---------------|
| 1. 영국인 ( )  | 2. 인도인 ( )    |
| 3. 韓民族 ( )  | 4. 인도네시아인 ( ) |
| 5. 불란서인 ( ) | 6. 中國民族 ( )   |
| 7. 필립핀인 ( ) | 8. 아메리카인 ( )  |
| 9. 黑人 ( )   | 10. 이탈리아인 ( ) |
| 11. 타이인 ( ) | 12. 러시아인 ( )  |
| 13. 獨逸인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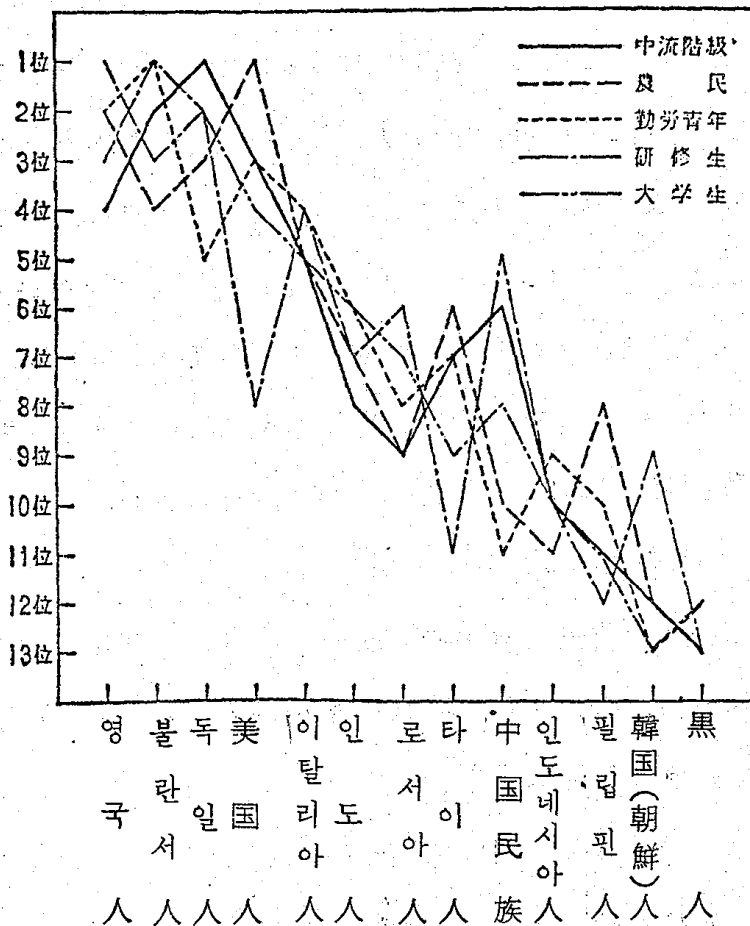
가장 좋아하는 國民이(1), 가장 싫어하는 國民이 (13)이므로 各國民에 대해 붙여진 數字의 合計가 적을수록 좋아하는 國民이 된다. 이 結果는 다음의 第5表와 第1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第5表는 全體의 順位만을 나타낸 것이고, 第1圖는 職業構成別에서 나타난 順位를 各各 그래프로 表示한 것이다.

全體順位에서 日本人들이 가장 좋아하는 國民이 영국인, 불란서인, 독일인, 미국인의 順序로 되어 있고, 韓國人은 黑人 다음으로 싫어하는 國民으로 나타나 있다. 더우기 주어진 13개 국민 또는 民族中에서 黑인은 어느 特定한 國家의 國民이나 民族이 아니라

第 5 表

順位	国民 ( 民族 )	順位	国民 ( 民族 )
1	영 국 人	8	타 이 人
2	불 란 서 人	9	中 国 民 族
3	독 일 人	10	인 도 네 시 아 人
4	미 국 人	11	필 립 핀 人
5	이 탈 리 아 人	12	한 국 ( 조 선 ) 民 族
6	인 도 人	13	黑 人
7	로 서 아 人		

第 1 圖



피부색에 依한 人種이므로 결국 國家社會의 구성원으로서의 國民 또는 民族中에서는 韓國人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 被調査對象者의 5가지 직업계층중에서 家庭裁判所의 調査官(研修生)만이 韓國人을 9位에 선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各階層이 모두 韓國人을 가장 下位나 또는 黑人 다음으로 싫어하는 國民에 選定하고 있고, 더우기 勤勞青年層과 大學生들이 韓國人을 黑人보다도 더 싫어하는 最下位에 選定하고 있었다.

日本人들이 좋아하는 國民이 各階層에 따라 英國人이나, 독일 사람이 하는 差異는 있으나, 모두 西歐의 先進諸國의 國民이라는 것은, 明治維新以後의 그들의 「脱亜」 西歐指向性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지만 反面 인도, 타이, 필리핀, 中國같은 아세아 國民中에서도 韓國이 가장 下位에 位置하고 있음은 日本사람들의 韓國人에 대한 否定的 感情과 偏見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社會的 距離測定尺度(Social Distance Scale)의 調査方法에 의한 日本人들의 他國民에 대한 受容度を 보자. 前記 我妻와 米山の 報告는 이 점을 밝히기 爲해 다음과 같은 要領의 10個의 質問을 하였다.

質問 1. 당신은……사람이 당신과 親旧가 되는 것을 贊成합니까, 反對합니까, 또는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까(以下 같은 요령으로 질문).

質問 2. 당신의 가족과도 親旧가 되는 것

質問 3. 같이 旅行하는 것.

質問 4. 日本에 사는 것.

質問 5. 당신의 아이들과 같은 學校에 다니는 것.

質問 6. 당신의 집 근처에 사는 것.

質問 7. 日本에 帰化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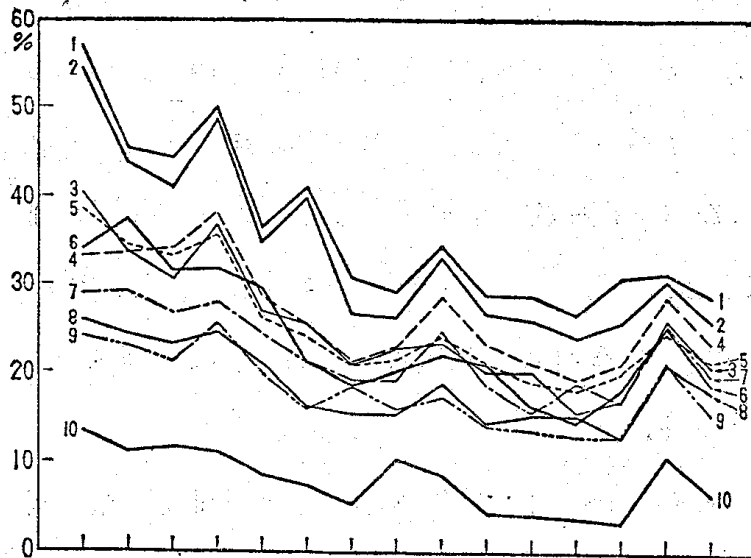
質問 8. 목욕탕이나 온천에 같이 들어가는 것.

質問 9. 여관에서 같은 방에 자는 것

質問 10. 당신의 형제·자매 또는 아이들과 결혼하는 것.

各 質問項目에 대한 解答中, 各國民別 受容度 즉 贊成이 차지하는 Percentage를 「그라프」로 나타낸 것이 다음에 보는 第 2 圖이다.

第 2 圖



1. 親友가 되는것
2. 家族과 親友가 되는것
3. 같이 旅行하는것
4. 日本에 사는것
5. 같이 通學하는것
6. 近處에 사는것
7. 日本에 帰化하는것
8. 같이 목욕하는것
9. 同宿하는것
10. 結婚하는것

영국 불란서 독일 미국 이태리 인도 로씨야 타국인 中國인 필리핀 韓國(朝鮮) 黑色系 白色系 黑色系混血兒 白色系混血兒

(我妻, 前掲書 p.125에서 옮김)

위의 第2 圖가 說明해 주는 것은 첫째 어느나라 국민에 대해서나 親旧가 되는 것, 家族과도 親旧가 되는 것 같은 농도가 얇은 交際에 대한 贊成度가 가장 높고 結婚과 같이 密度가 높은 交際에 대한 贊成度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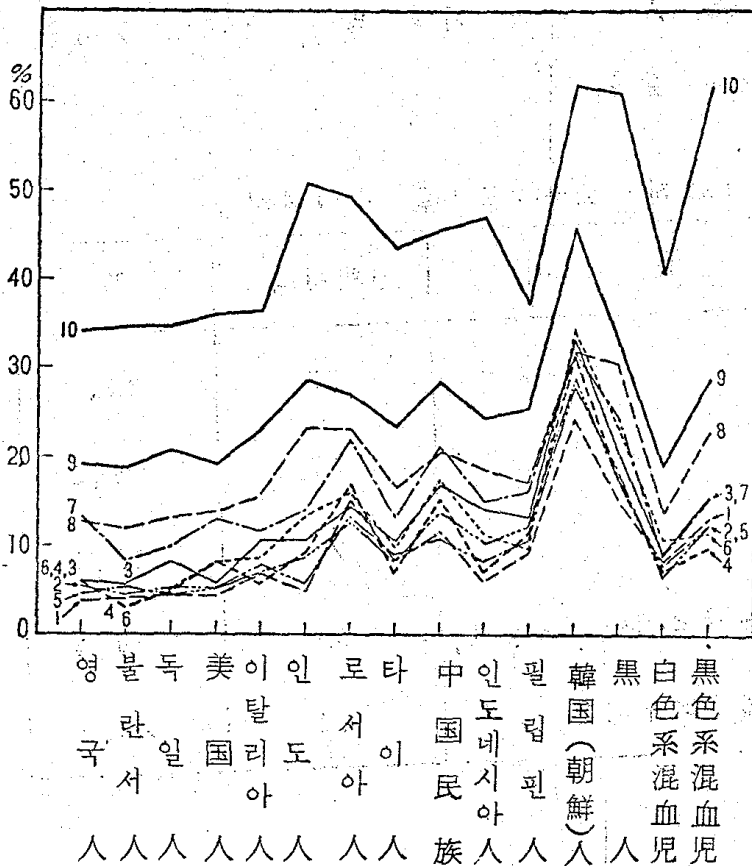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親旧가 되는 것에서부터 結婚에 이르기까지 거의 어느 項目의 交際形態에 對해서나 韓國人에 대한 受容度가 다른 어느 國民에 대한 受容度보다도 가장 낮다는 것이다. 第1 項目의 質問(親旧가 되는 것)에 대한 解答結果中, 인도인이 이탈리아인보다 높고, 中國인이 그 다음에 位置하는 등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項目에 따라서는 日本人들의 脱亞・西歐指向性의 例外 現象이 되나, 全体的으로는 역시 脱亞・西歐指向性이 立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인이나 中國인이 이탈리아인보다 親旧가 되는 面에서 受容度가 높은 것에 대해 이를 같은 東洋人 또는 文化傳統의 同一性 때문에 理解되기가 쉬운 때문이라고 解釋하는 경향도<sup>8)</sup> 있으나, 같은 東洋人 그것도 文化傳統의 관련이 가장 깊은 韓國人에 대해서는 親友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가장 受容度가 낮게 나타났다.

全体 質問中 韓國人은 다만 日本에 歸化하는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黑人보다 若干 受容度가 높고, 結婚과 同宿하는 것에서 黑人과 受容度가 거의 같을 뿐, 나머지 모든 面에서 가장 受容度가 낮다. 이것은 역시 日本人들의 韓國人에 대한 偏見의 強度를 나타내준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앞의 10개 項目의 質問에 대한 「反對한다」는 応答의 Percentage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음에 보는 第3圖이다.

이것은 日本人들의 各國民에 대한 積極的인 拒否反應을 나타낸 것이다.

第3圖, 他國人에 대한 拒否度



그래프

1. 親友가 되는것
2. 家族과 親友가 되는것
3. 같이 旅行하는것
4. 日本에 사는것
5. 같이 通學하는것
6. 近處에 사는것
7. 日本에 歸化하는것
8. 같이 목욕하는것
9. 同宿하는것
10. 結婚하는것

(我妻, 前掲書 p.130에서 옮김)

여기에서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듯이 가장 현저한 特徵은, 모든 항목에 있어, 韓民族에 대한 拒否度가 다른 어느 國民에 대한 拒否度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 日本人들의 韓國人에 대한 이러한 拒否反應은 어떠한 韓國人象에 기인하는 것일까? 我妻·米山報告는 日本人들의 各國民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爲해 64개의 形容사 「리스트」를 준비하고 各國民의 特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5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結果中에서 韓國人에 대해 가장 많이 나타난 것만을 따로 뽑아보면 다음 表와 같다. 9)

第6表 韓國人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프」型 「이미지」

형용사 빈도순위	형용사	선택된회수	%
1	불결하다	87	32.2
2	교활하다	79	29.3
3	비굴하다	77	28.5
4	행동과 예의범절이 나쁘다	66	24.4
5	군중심리에 좌우되기 쉽다	64	23.7

참고삼아 피조사대상자의 약 3분의 1에 공통된 各國民에 대한 「이미지」를 몇가지 들어보면, 영국인에 대한 「冷靜하다(침착하다)」,



「理性的이다」, 仏蘭西人에 대한 「명랑하다」, 독일人에 대한 「理性的」 「理論을 잘 따진다」, 타이人에 대한 「純朴」, 「保守的」, 그리고 韓國人에 대한 「不潔」, 黑人에 대한 「運動神經이 發達되어 있다」등이다.

韓國以外的 餘他國民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日本人들이 好感을 갖고 있는 歐美系의 國民에 대하여는 例컨데 영국人에 대한 「이미지」에서 보듯이 ①예의가 밝다 ②保守的이다 ③冷靜(침착)하다 ④理性的이다 ⑤道德的이다라는 것처럼 肯定的인 「이미지」가 圧倒的으로 많다. 日本人들이 韓國人과 더불어 가장 拒否하고 있는 黑人에 대해서도 ①운동신경이 발달돼 있다 ②밝고 명랑하다 ③미신적이다 ④충동적이다 ⑤純朴하다라는 式으로 肯定的인 「이미지」와 否定的인 「이미지」가 混在하고 있는데<sup>10)</sup>,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는 ①不潔 ②교활 ③비굴 ④예의범절이 나쁘다 ⑤群衆心理에 支配되기 쉽다라 하여 모두가 否定的인 것 뿐이다. 日本人들이 調査對象이 된 各民族이나 國民中에서 韓國人에 대한 受容度가 가장 낮고 拒否度가 가장 높았던 것도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日本人들의 對韓「이미지」가 全的으로 否定的인데에 基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調査의 被調査對象者들이 앞의 第2表에서 보듯이 거의가 旧制高校卒 以上の 인텔리들이었다는 點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살펴온 日本人들의 對韓國人) 態度나 그 底辺의 對韓國人)「이미지」, 즉 韓國人에 대한 偏見이 단지 어

는 사회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一部の 無識한 大衆의 對韓觀만이 아니라 大卒以上の 인테리 階層에서도 一般的인 것이라는 點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日本人들의 韓國(人)觀은 1967年頃 즉 韓·日 國交正常化가 成立된 後 1~2年頃の 韓國觀이다. <sup>11)</sup>

어느 國民의 他國民에 對한 「이미지」를 막론하고 상황의 變遷에 따라 可變的일 수 있다. 이제 我妻와 米山の 報告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日本人들의 韓國(人)觀이 韓·日 國交正常化로부터 10餘年이 흐른 近年에는 얼마나 變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以下 1978年9月과 10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 <sup>12)</sup>를 中心으로 近年에 있어서의 日本人들의 韓國(人)觀을 살펴봄과 同時에, 1967年頃の 對韓國(人)觀과 比較해 보기로 하자. <sup>13)</sup>

1978年9月과 10월에 걸쳐 實施되었던 輿論調査 <sup>14)</sup> (以下 辻村調査라 稱한다)는, 1967年の 我妻, 米山の 調査와 比較하여 볼 때, 그 調査對象의 規模·方法·目的 등에 있어 相違點이 많다. 즉 1967年の 調査가 270名의 小規模 對象者로부터의 回答結果였던 點에 比해, 1978年の 調査는 東京과 大阪에서 層化無造作的으로 抽出된 1,350名의 對象으로부터 回收된 資料에 依한 것이었다. 또한 我妻의 調査가 主로 日本人의 人種觀을 보기 爲해 13개 國民(民族)과 黒色系·白色系混血兒에 對한 종합적인 調査였음에 比해 1978年の 辻村調査는 그 目的이 韓·日 兩國의 文化마찰에 關한 調査의 一部로서, 韓·日 兩國에 局限된 調査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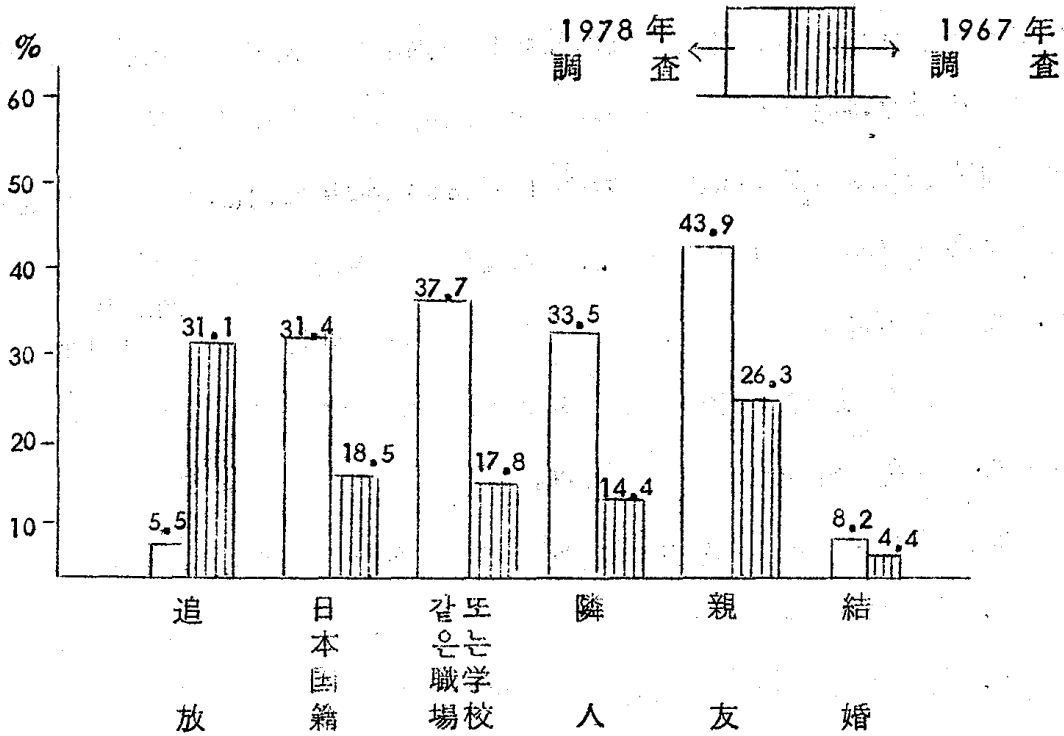
따라서 設問의 方法이나 表現등에도 차이가 있어 두개의 調査를 그대로 비교하는데에는 약간의 問題點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개의 調査中에는 역시 같거나 비슷한 設問이 있어 그러한 項目에 관하여서는 두 時期의 日本人들의 韓國觀을 比較해 보는데 그런대로 有用하다.

1978 年の 辻村調査에서는 Social Distance Scale 의 設問으로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하고 있다.

問. 당신은 韓國人과 다음과 같은 사이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 結婚하여 親類관계가 되는 것
2. 個人的으로 親友가 되는 것
3. 近處에 가깝게 사는 것
4. 같은 職場에서 함께 일하는 것
5. 日本 国籍을 주는 것
6. 旅行者로서 받아 들이는 것
7. 日本社会에서 내 쫓는 것

이들 設問에 대한 回答中 贊成比率(%)과 1967 年の 조사設問中 같거나 비슷한 設問에 대한 贊成比率(%)을 뽑아 对照하여 보면 아래의 圖表와 같다. <sup>15)</sup>



第 4 図 ( 1967 年과 1978 年 韓国人에 대한 受容度 比較圖 )

위의 第 4 圖의 두개의 「그래프」를 对照하여 보면, 1967 年에 비해 1978 年에는 日本人들의 韓国人觀이 상당히 好轉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韓国人사람과 個人的으로 親友가 되는 것에 대해 1967 年에는 贊成 26.3%에서 1978 年에는 43.9%로 늘어났고, 近處에서 가깝게 사는 것에 대해, 14.4%에서 33.5%로, 같은 職場에서 함께 일하는 것과 子女가 같은 學校에 다니는 것을 같은 內容의 質問으로 보면 17.8%에서 37.7%로 日本에의 歸化에 대해서는 18.5%에서 31.4%로 늘어나, 거의 모든 項目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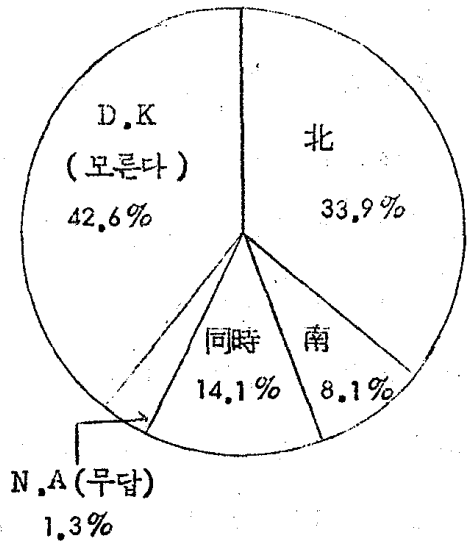
2倍 前後의 贊成을 나타내고 있다. 또 日本社会에서 추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967년에는 日本에서 사는 것에 대한 反對가 31.1%나 되던 것이 1978년에는 日本에서의 追放 贊成이 5.5%로 현저히 줄고 있어 韓国人에 대한 극단적인 拒否反應도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輿論調査에 따르면, 1967년에 비해 1978년에는 日本人들의 韓國(人)觀이 상당히 好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sup>16)</sup> 이러한 好轉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지 別個의 調査分析이 必要하나, 全般的으로 추찰하여, 韓·日 国交正常化以後, 韓·日 兩國間의 政治·經濟·文化의 諸方面의 交流가 빈번하였다는 점과 그간 韓國의 經濟가 비약적인 發展을 하였다는 점등이 때때로 兩國 또는 兩國國民間에 不協和音을 낳으면서도, 兩國間의 交流가 극히 制限되어 있던 時期에 비해, 日本人들의 韓國(人)認識을 相對的으로 好轉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以下 言及할 辻村氏의 調査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韓國에 旅行을 한 經驗이 있는 사람들이, 旅行經驗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모든 設問에서 韓國(人)에 대한 知識이 豊富하고 正確하며, 또한 相對的으로 好意的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国交正常化 以後의 빈번한 交流가 日本人들의 韓國(人)觀을 好轉시키는데에 作用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日本人들의 韓國(人)觀의 好轉은 어디까지나 以前時期와의 比較에서 본 相對的인 것으로서 아직도 많은 問題를 內包하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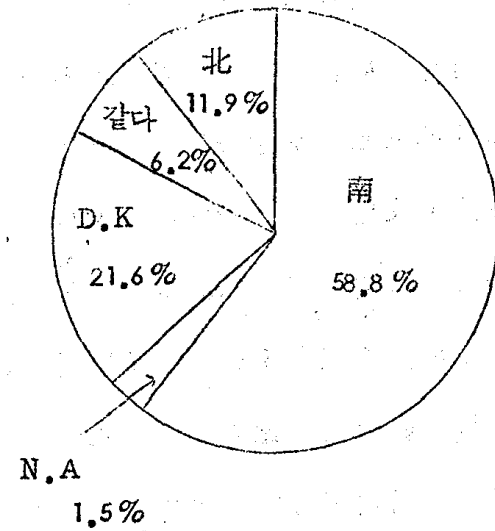
다음의 各表는 日本人들의 韓国(人)觀을 南・北韓으로 對比시켜 調査한 結果이다. 17)

第 5 圖 < 南・北韓 「아메지」 比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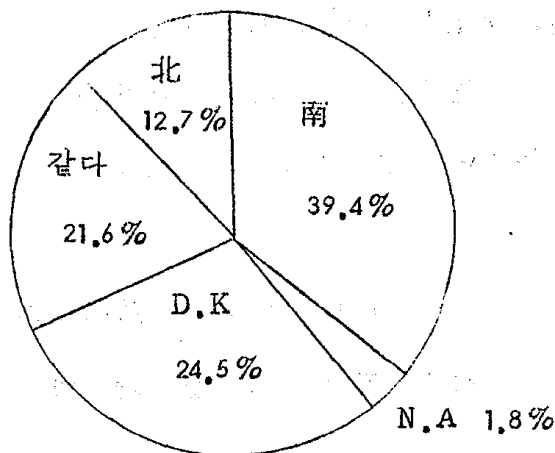
A 1950 年の 韓国動亂은 南과 北의 어느쪽이 먼저 侵略했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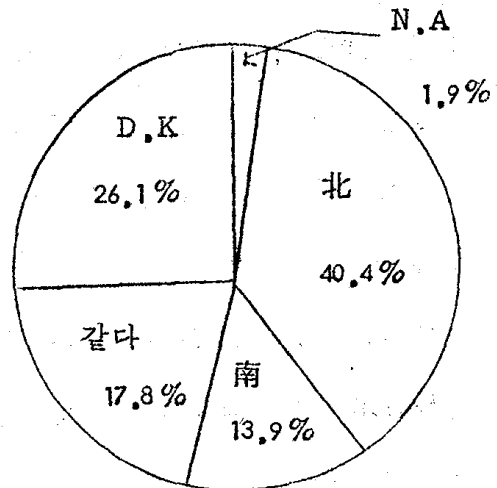
B 경제적으로 어느쪽이 더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 政治적으로 어느쪽이 더 自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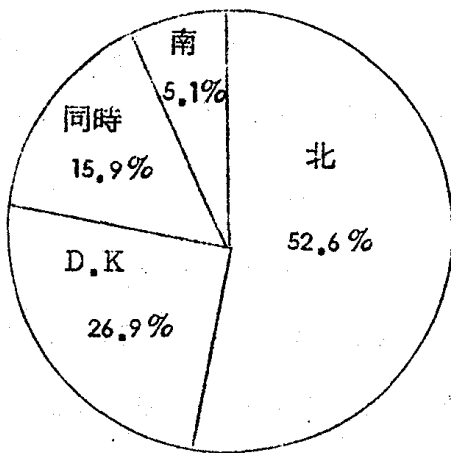
D 군사적으로 어느쪽이 더 공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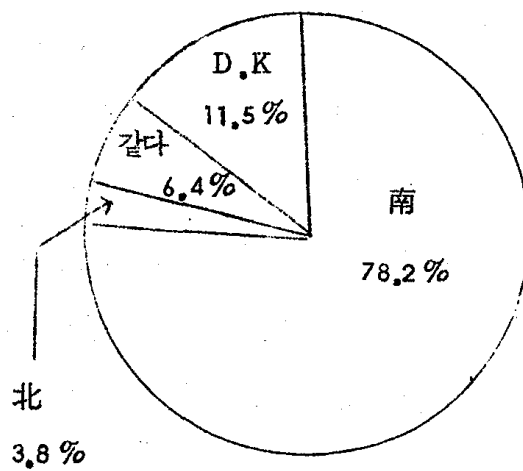
위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韓國에 旅行한 經驗이 있는 사람들 (78名) 만을 상대로 조사한 結果를 圖表化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第6圖 <旅行者 Sample 南·北韓「이미지」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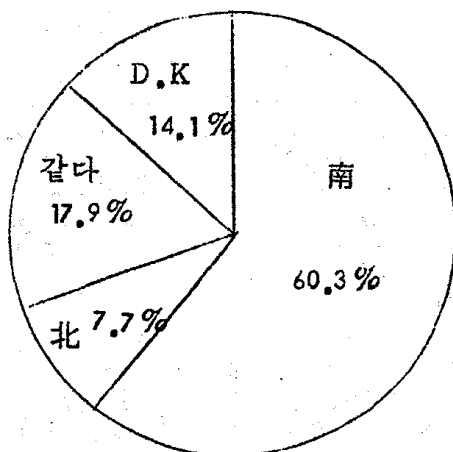
6.25 먼저 侵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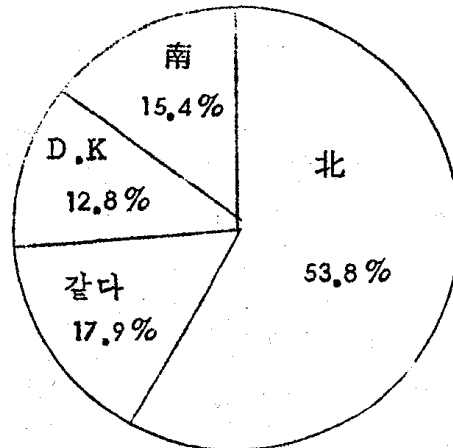
經濟적으로 더 發展은?



政治적으로 더 自由는?



軍事的으로 더 攻撃的인 것은?



以上과 같이 南·北韓을 對比시켜 볼때에 韓國에 대한 「이미지」가 北韓에 대한 「이미지」보다 훨씬 좋게 나타나 있고, 더우기 韓國에 旅行한 經驗이 있는 사람들의 境遇, 그러한 傾向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比較나 韓國에 대한 单独質問이 아니고 韓國을 世界的인 視野에서 各國과 比較하여 質問을 했을 경우, 日本人들의 對韓國(人) 「이미지」는 결코 良好한 것이 아니었다. 1978年의 辻村調査에서도 世界各國의 國民들에 대한 日本人들의 好·惡감정을 묻는 質問이 있었다. 즉 인도, 아메리카, 韓國, 西獨, 中國, 영국, 佛蘭서, 北韓, 필립핀,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소련,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의 15개국中에서 좋아하는 나라를 순서대로 3개국을 고르도록 한 것이다. 이 質問에 대한 回答結果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

第7表 <sup>19)</sup>

	一般 Sample 총수=1,350	韓國에 가지 않았다 1,244 名	韓國에 갔었다 87 名	韓國 旅行 經驗者만의 Sample
1	스 위 스 (32.3%)	스 위 스 (33.7%)	아 메 리 카 (18.4%)	스 위 스 (21.8%)
2	아 메 리 카 (21.0%)	아 메 리 카 (21.1%)	스 위 스 (17.2%)	아 메 리 카 (19.2%)
3	카 나 다 (13.9%)	카 나 다 (13.9%)	서 독 (14.9%)	카 나 다 (17.9%)
韓 國	12 位 (0.4%)	12 位 (0.2%)	8 位 (2.3%)	6 位 (6.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般 Sample에서도, 旅行者 Sample에서도 모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나라는 歐美先進国으로서 그들의 脱亜・西歐指向性이 持續되고 있다. 韓國은 15개국中 겨우 12位에 位置하고 있을 뿐이다. 그中 韓國에 旅行한 經驗이 있는 사람들이 韓國을 8位에, 그리고 旅行者만의 Sample에서는 6位를 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역시 1967年 當時 調査의 13개中 12位에 比해 韓國觀의 相對的 好轉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으나, 全般的으로 보아 아직도 韓國(人)은 日本人들이 싫어하는 나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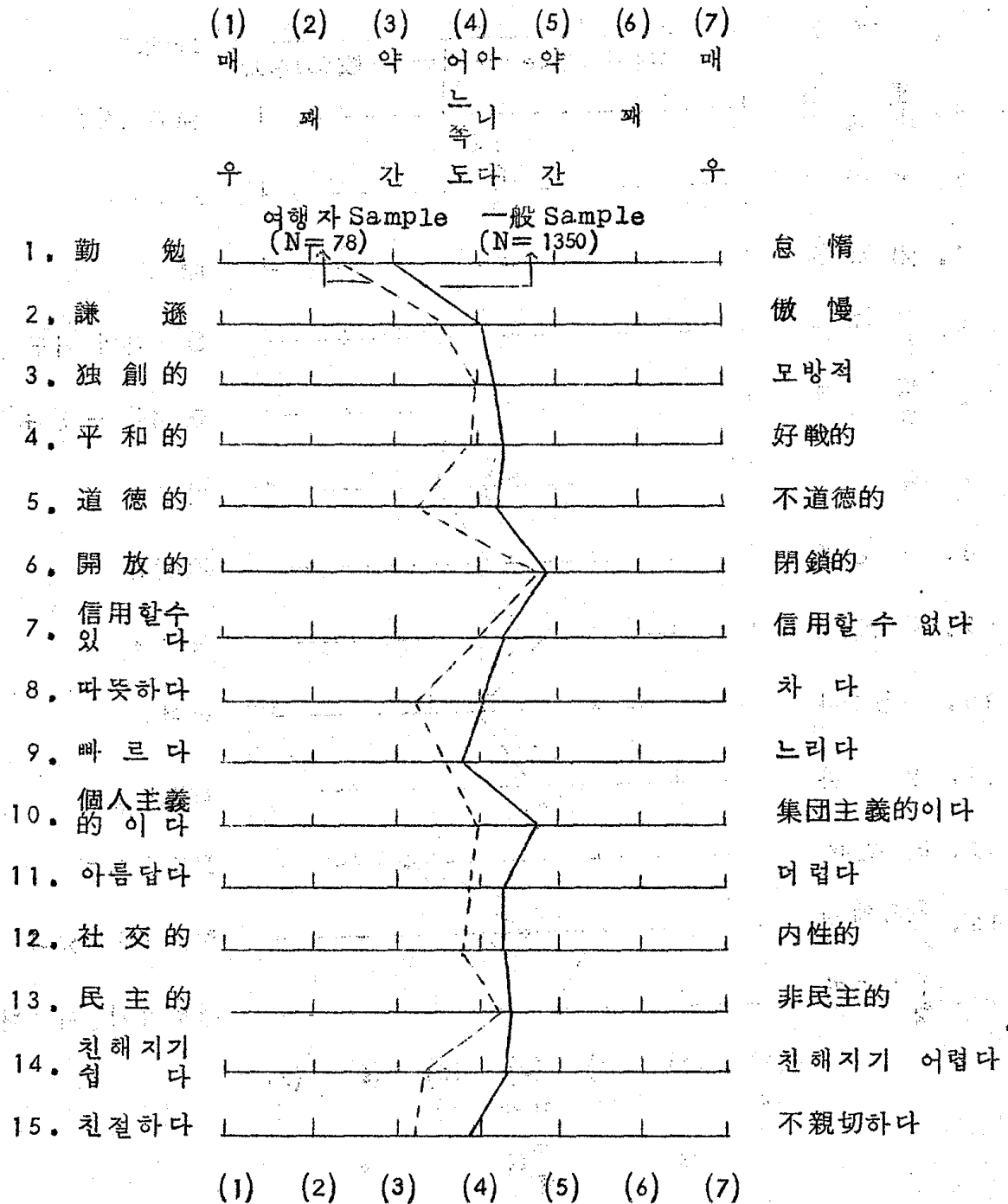
그것은 辻村調査의 다음과 같은 結果로서도 立証되고 있다. 즉, 前記 15개국中 「平和에 대해 가장 積極的인 나라는?」이란 質問에 대해 韓國은 겨우 12位(0.7%)였고, 「가장 好戰的인 나라는?」이란 質問에선 소련, 北韓, 아메리카에 이어 第4位(5.6%) (여행자 Sample에서도 5位), 「民主的인 나라는?」이란 質問에서 12位(0.2%), 「独裁的인 나라는?」이란 質問에선 一般 Sample에서나 旅行者 Sample에서나 다같이 韓國을 소련 다음으로 第2位에 位置시키고 있다. 또 이 마지막의 「独裁的인 나라는?」이란 設問에 대해 応答者들은 韓國 다음으로 北韓을 第3位에 들고 있다. 그들이 韓國을 北韓보다 자유가 더 많은 나라라고 認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前記 第5圖와 第6圖 참조), 이와 같이 韓國을 北韓보다도 더 独裁的인 나라라고 보고 있는 것은 矛盾된 応答이라 하겠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南·北韓을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北韓이 더 「공격적」이고 「好戰的」이며 「自由가 없다」고 認識하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韓國에 대해서도 「好戰的」·「獨裁的」인 나라로 보고 있어, 韓國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좋은 것이 못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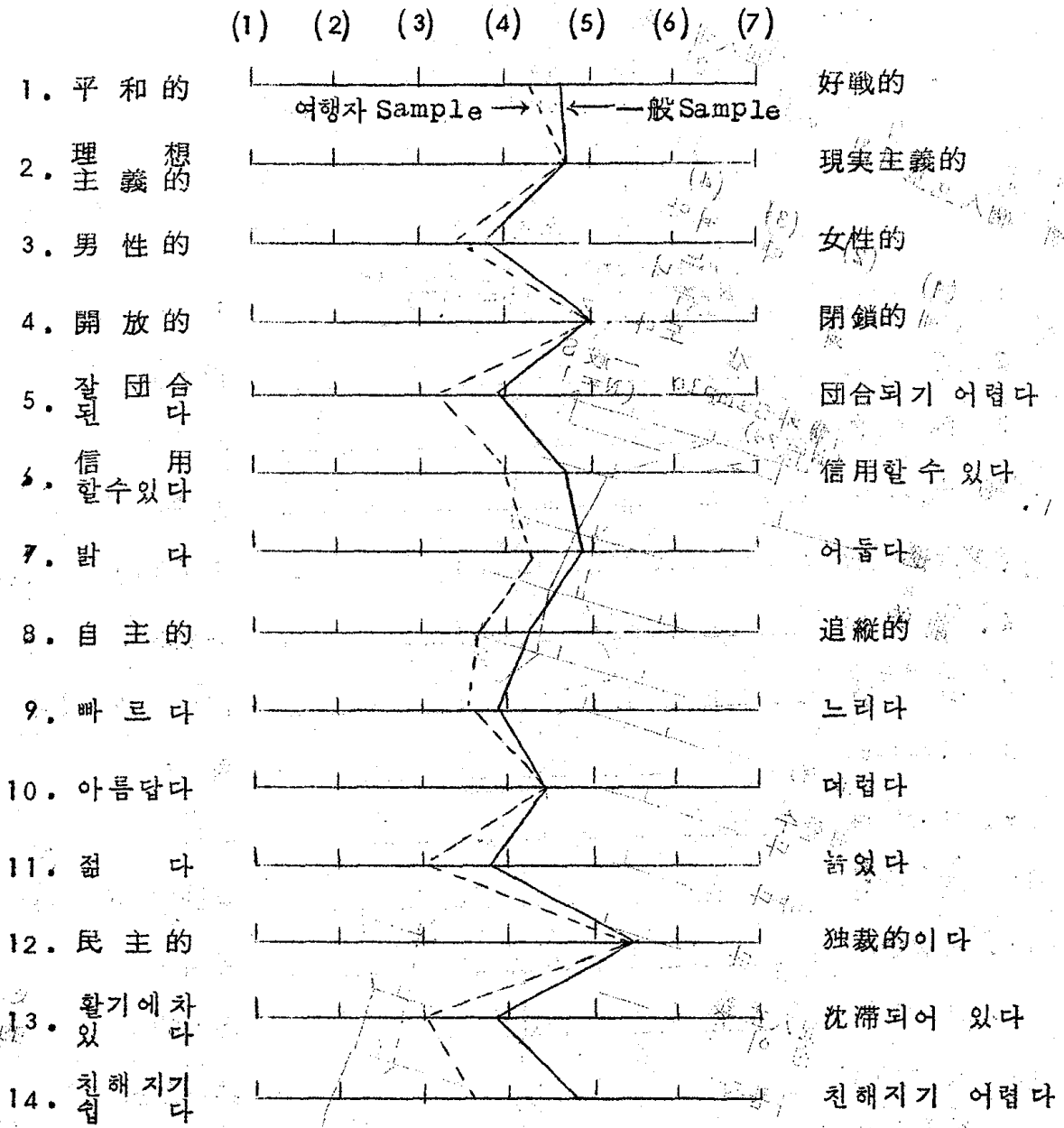
다음으로 SD法(Semantic Differential)에 의한, 國家로서의 「韓國」과 個人으로서의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의 調查結果를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자.

다음의 第7圖가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이고, 第8圖가 「韓國」에 對한 「이미지」이다. <sup>20)</sup>

第7圖 個人으로서의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



第 8 圖 國家로서의 韓國에 대한 「이미지」



(1) (2) (3) (4) (5) (6) (7)  
 매 약 어아 약 매  
 짜 짜  
 우 간 도다 간 우

먼저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韓國人을 「근면」한 편이라고 보고 있는 것 以外에는 거의가 「어느쪽도 아니다」라는 것이거나, 否定的 評價를 하고 있다. 위의 圖表에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기울수록 否定的 「이미지」이고, (1)~(7)까지에서 平均值가 (4)를 넘으면 總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韓國人에 대한 平均值가 4.12 라는 計算結果<sup>21)</sup> 이므로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否定的인 쪽에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國家로서의 韓國에 대한 「이미지」는 平均值가 4.41로서 韓國人 「이미지」보다 더 否定的이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 基因하는 것인지 매우 관심을 끄는 일인데, 이 점에 대해 辻村調査에서도 한가지 解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辻村調査에서는 韓國人 「이미지」와, 韓國 「이미지」의 形成源에 대해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하고 있다.

質問. 「韓國人」에 대한 당신의 印象(「이미지」)은 다음중

어느 것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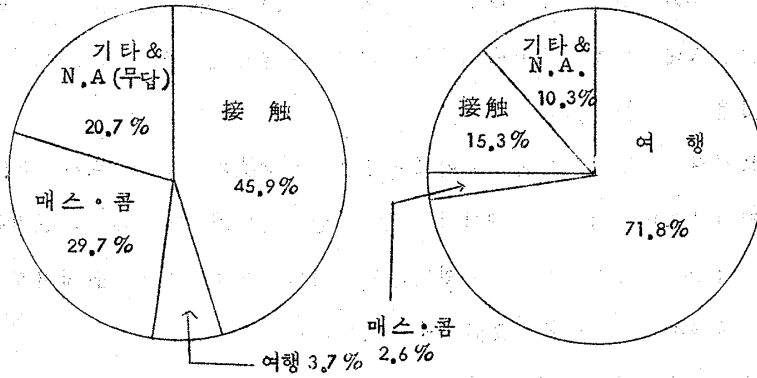
1. 韓國(또는 北韓)에 갔던 경험
2. 日本에 있는 韓國人(또는 朝鮮人)과의 接觸
3. 家族, 知人, 友人과의 이야기
4. 매스·콤(新聞·雜誌·TV)으로부터의 정보
5. 기 타
6. 모르겠다

아. 質問에 대한 応答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22)

第9圖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 形成源

(A) 一般 Sample

(B) 여행자 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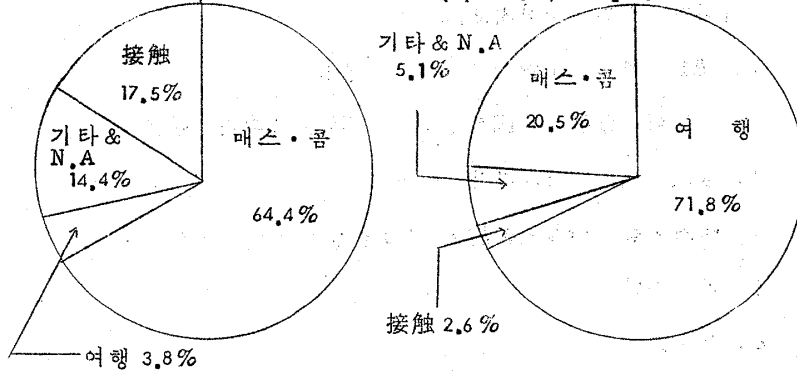


국가로서의 韓國「이미지」에 대한 「이미지」形成源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23)

第10圖 國家로서의 韓國「이미지」 形成源

(A) 一般 Sample

(B) 旅行者 Sample



위의 第9圖와 第10圖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는 直接的인 接觸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一般 Sample 의 경우 49.6%, 여행자 Sample 의 경우 87.1%), 매스·콤 (29.7%)이란 間接的인 接觸을 크게 上廻하고 있는데 反해 韓國에 대한 「이미지」는 매스·콤에 의해 形成되는 率이 높다.

더우기 여행자의 경우, 한국에 대한 「이미지」形成源에서도 역시 直接的 接觸(旅行과 接觸)이 74.4%로 가장 큰 「이미지」形成源이 되어 있다. 注目할 것은 여행자의 경우가 一般 Sample 의 경우보다 韓國인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韓國 「이미지」에서도 상대적으로 良好한 「이미지」를 形成하고 있다는 点이다.

이 点을 고려할 때 今後 더욱 兩國間의 交流를 促進하여 國民間에 直接的인 接觸을 도모하는 것이 兩國間의 「컴뮤니케이션」 「갯」을 메우고, 「이미지」를 好轉시키는 最善의 方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모든 國民이 直接的인 接觸을 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全般的으로는 매스·콤이란 間接的인 接觸 media가 항상 가장 큰 이미지의 形成源으로 남게 마련이다. 이러한 매스·콤이 直接的인 接觸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韓國(人) 「이미지」形成源이 되어 있다는데에 큰 問題點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日本人들의 韓國(人) 「이미지」가 情報의 제공方法에 따라 즉 好意的인 정보가 제공되느냐, 非好意的인 정보가 제공되느냐에

따라, 크게 左右된다는 것이 別途의 小規模 實驗結果<sup>24)</sup>에서도 立証되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日本, 매스·콤의 韓國(人) 報道에 대한 偏向을 是正하는 일이 急先務라 하겠다. 日本의 매스·콤이 과연 어떠한 報道偏向에 빠져 있으며 또 매스·콤 종사자들이 어떠한 韓國(人)觀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爲해서는 直接的으로 新聞·雜誌·TV 등의 報道記事에 대한 內容分析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作業은 別個의 課題로 미루기로 하고 本稿의 다음 章에서는 日本의 매스·콤 종사자들을 포함한 日本知識人들이 그들의 歷史교육과정이나 日本思想의 形成과정을 통해 傳授·習得해온 韓國(人)觀의 歷史的 傳統을 考察하기로 하겠다.



### Ⅲ. 韓國觀의 歷史的 傳統(近代以後)

日本人들의 韓國觀의 系譜, 傳統을 그 根源부터 알려면, 日本古代國家 形成期의 韓國觀에 까지 遡及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近代以後 日本의 韓國觀은, 日本의 古代國家 形成期의 韓國觀과 直接, 間接으로 많은 關聯이 있다. 그러한 意味에서 古代 日本人의 韓國觀에 關한 全面的 檢討는 매우 重要한 作業이라 하겠으나, 本稿에서는 그 餘裕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에 關하여는 이미 李用熙教授의 論文<sup>1)</sup>을 비롯하여 先學들의 業績이 나와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近代以後의 日本의 韓國觀의 몇가지 傳統을 考察하기로 한다.

#### 1. 明治維新 初期의 韓國觀: 征韓論

中華的 國際秩序를 前提로 하지않은 韓·日兩國의 近代國家로서의 새로운 關係는 1876年의 江華島條約에서 始作된다.

1868年에 明治維新의 成功으로 近代國家로 出沒한 日本이 그後 곧 維新政府의 樹立을 通告함과 同時에 새로운 韓·日兩國 關係의 樹立을 要求하는 國書를 伝해음으로서, 이의 受諾 与, 否를 둘러싸고 兩國間에 「書契」問題가 多年間 外交的 懸案이 되어 있었다.

1876年의 江華島條約은 從來의 衛正斥邪思想에 立脚하여 鎖國政策을 견지해 오던 當時의 李朝朝廷이 日本의 武力的 示威에 屈하여

不得不 締結하게 된 , 말하자면 強要된 開国条約이었다는 點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當時의 朝廷内部에서도 少数이나마 朴珪壽같이 自主的開国論을 主張한 者가 없지는 않았고 , 더욱이 江華島条約을 契機로 하여 , 곧 開国과 西歐文物의 導入의 不可避性을 認識하여 開国の 歴史的 意味를 積極적으로 把握하려는 開化派가 形成된것도 周知하는바와 같다. 金玉均을 中心으로한 狹意의 開化派 뿐만 아니라 , 當時의 朝廷이 近代日本과 直接 , 間接으로 連繫를 맺기 始作하고 新興 日本에 関心을 表明하기 始作한것도 바로 이 江華島条約을 契機로 하여서였다.

그런데 , 이 江華島条約이 締結되기 3年前인 1873年(明治6年) , 日本에서는 , 西郷隆盛 , 板垣退助 , 後藤象二郎 , 江藤新平 , 副島種臣등이 征韓論을 主張하여 物議를 이르켰다. 征韓論은 日本의 近代政治史上 매우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는 事件이었다. 그 理由는 , 征韓論争은 그 結果 , 西郷을 비롯하여 소위 征韓派에 屬한 5人의 參議의 辭職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 더 나아가 그 余波로 佐賀 , 西南의 二大戰亂으로 進展되었고 , 그後 征韓論争에서 敗退한 板垣 , 後藤 , 江藤등이 自由民權運動을 일으켜 憲政施行을 促進시키는등 , 日本国内政治에 큰 影響을 미치는 契機가 되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征韓論의 日本国内政治에 미친 影響이야 어떠하건 , 韓 . 日 兩國의 關係史의 觀点에서 볼때 , 이 征韓論이야말로 近代国家로서 出發한 日本의 最初의 韓国觀이었다. 征韓論을 主張한 것은 , 1873年(明治6年)의 西郷등의 소위 征韓派가 처음이 아니었다.

元來 征韓論은 幕末의 復古思想과 一脈 相通하는 것이었다.

復古思想과 關聯하여 “征韓”을 꿈꾼者들이 적지 않았으나 그  
중에도 山田方谷, 大島正朝 등은 “征韓”을 政治적으로 利用하려는  
者들로서 注目할만 하다.<sup>3)</sup> 그러나 全体的으로 보아 幕末의 海外  
雄飛論 즉 亜細亞 侵略論은, 外圧에 依한 危機意識에서 생긴 着想  
으로서 當時의 日本의 国内狀況 下에서는 實現可能性이 없는 一種  
의 抽象論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던것이, 明治維新後, 征韓論이  
明治政府의 首腦部에 依해 主張되면서부터 그것은 現實性 있는  
政策論으로 展開되었다.

明治以後 征韓論을 가장 먼저 主張한 者는 大島正朝의 感化를  
받은 木戶孝允이었다. 木戶는 1868年(明治元年), 日本의 國書가  
釜山の 倭館에 到着하기 以前인 12月14日, 이미 岩倉貝觀에 建議  
하기를,

“使節을 朝鮮에 派遣하여 그들의 非禮를 問責하고 만약  
不服할 境遇에는 問罪使를 發하여 그 領土를 攻擊하여  
皇國의 國威를 伸張하여야 한다.”<sup>4)</sup>

고 하였다. 木戶는 그後에도 繼續 征韓을 主張하였다. 即  
1869年(明治2年)正月, 軍務官 大村益次郎에게 보낸 書翰에서

“韓地의 事는 皇國御國體 相立하는 處로서 今日之宇內之  
條理를 推諷함에 있어, 東海에 光輝를 生함은 여기에서  
始作된다고 愚考함 … 伝伝”<sup>5)</sup>

하였다. 1869年 年末, 木戶는 위와같은 論旨에서 再三 韓國에의

使節派遣을 內閣에 提議하였다. <sup>6)</sup> 이 提議에 依해, 1870年(明治3年) 10月, 日本政府는 韓國에 使節을 派遣하였다. 使節派遣의 論理는 當時의 外務卿 沢宜嘉의 表現을 빌리면

“韓國은 上古 素尊親征의 靈跡이 있다. 列聖綏撫의 國으로서 그 國의 消長如何는 우리 國家安危에 關聯되는 바이다. 하물며 近來 露國垂涎의 狀이 있음에, 우리 帝國이 그것(韓國… 引用者)을, 匡救하지 않으면 그 存亡을 알 수 없다. 이 때를 당하여 朝使를 派遣함은 刻下의 最大急務이다.” <sup>7)</sup>

라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使節派遣의 目的은 王政復古를 알려 友好를 求한다는 名目下에 韓國을 制壓하는 口實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韓國側에 依해 日本의 國書가 拒絶되고 書契의 形式의 改修가 要求되자, 使節로 派遣되었던 佐田素一郎(白茅)은, 歸國後 1870年 3月, 西郷, 板垣등의 征韓論의 嚆矢가 되었다는 亂暴하기 짝이없는 「30大隊論」으로 알려진 征韓論을 主張하여 韓國出兵의 端緒를 만들었다. 그 要旨는,

“朝鮮은 固陋榜頑하며…皇國을 蔑視하고, 文字에 不遜함이 있다고 主張함으로써(韓國側의 書契形式의 改修要求를 가르킴…引用者) 皇國에 恥辱을 끼쳤다. …實로 不俱戴天之 寇이다. 반드시 이를 罰하지 않으면 안된다.” <sup>8)</sup>

고 한다음 30大隊를 編成하여 其中 10大隊는 江華府로부터 서울을 公략하고, 나머지 20大隊를 6:4:10의 比率로 編成하여 各各 하나는 忠淸, 全羅, 慶尙道 方面에서 또 하나는 江原, 京畿地方에서

나머지 하나는 鴨綠江을 거슬러 올라가 威鏡, 平安, 黃海方面으로 부터 韓半島를 攻略한다<sup>9)</sup>는 것이었다.

佐田과 더불어 使節로 왔던 森山茂도 다음과 같이 征韓을 主張하였다.

“... 50萬의 士族을 擧하여 朝鮮에 進出 하여야 한다. 이제 維新의 大業은 이루었으나 四方에 뜻을 이루지 못한 者들이 士氣 鬱勃하여 變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故로 이 機會를 타서, 不平士族을 韓半島에 移植하는 것은 內亂을 外部로 옮기는 길이 된다. 同時에 國利를 海外에 開拓하는 基礎이기도 하다. 이 어찌 一舉兩得의 策이 아니겠는가?”<sup>10)</sup>

또한 森山茂, 広津弘信등의 代辯者로 생각되고 있던 外務大丞 柳原前光<sup>11)</sup>의 征韓論은 매우 치밀하여, “征韓論의 標本”이라고 까지 指稱되었는데<sup>12)</sup>, 그는 岩倉具觀에게 提出한 4個條의 『征韓論』의 序文속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皇國(日本을 지칭...引用者)은 絶海의 大弧島에 處한 者로서 各國과 並立하여 國位를 皇張하는 儀가 最大難事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朝鮮은 北은 滿洲에 達하고, 西는 遼溝에 接한 地로서 이를 緩服하면 實로 皇國保全의 基礎로서 後日 萬國經略進取의 基本이 되오며... 더우기 近年 各國도 彼地의 國情을 探知하여 빈번히 그를 窺보는者가 적지 아니하옵고 이미 魯西亞는 滿洲 東北을 蚕食하고 共勢가 往往 朝鮮을 呑하려 하옵니다. 이는 皇國이 一刻이라도 輕忽히 보아서는

안될 때라고 思料되는 바이옵니다. 더우기 列聖御重念의  
地인것을 말이 옵니다. \* 13)

以外에도 征韓論을 主張한 者가 적지 않으나, 위에서 例로든 사  
람들이 主張한 여러形態의 征韓論에 나타난 韓國觀은,

첫째 韓國(朝鮮)은 日本을 蔑視하여 恥辱을 끼친 無禮한 나라  
로서, 日本의 威力을 보여 주어야 하는 나라이며, 둘째로 러시아  
등의 他國이 侵略하여 取하기 前에 日本스스로가 取하여야 하는  
나라이고, 셋째로 日本内の 内亂을 밖으로 돌리는 方法으로서 不平  
士族을 移植시킬 나라라는 것이다. 隣國으로서 對等한 國交를 맺  
는 相對國으로서의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수 없다. 또한 이들  
征韓論者들은 韓國(朝鮮)에 對한 日本의 優越的 地位가 自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例를 들면 前記 沢 外務卿의 意見書속에  
韓國에는 「素尊親征의 靈跡」이 있다느니, 「列聖綏撫의 國」이니 하  
는 表現에 나타나듯이 이들 征韓論者들은 韓國이 太古로부터 日本의  
屬國이었다는 『日本書記』『古事記』以來의 主張을 援用하고 있다.  
即, 日本의 神話, 傳說, 歷史를 回顧하여 韓國侵略을 正当化하고 또  
한 鼓舞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發想은 以後에도 繼續 日本人  
들의 思考方式을 支配하여 「옛부터 日本이 征服, 支配한 韓國」따  
라서 「日本에 從屬되어야 하는 韓國」이란 對韓國觀을 再生, 擴大  
시켜가게 되는 것이다.

木戶, 沢, 佐田, 森山등이 主張한 征韓論은 드디어 1873년에 들어  
와서 西郷隆盛의 「遣韓大使論」으로 흡수, 主張됨으로서, 日本政府

首脳部内に 一大論争으로 進展되었다. 一般的으로 「征韓論」으로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스스로 遣韓使節이 될것을 主張한 西郷<sup>14)</sup>의 征韓論의 論旨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幕主의 攘夷論을 능가하는 對外侵略 = 海外雄飛論이었다. 그는 日本이 列國과 並馳하여 宇内の 獨立國이 되기 爲하여는,

“「오직 戰爭征伐하여 海外에 渡하여 武力을 發하는것 뿐으로…今日, 仏, 獨, 魯 諸國이 支那, 朝鮮, 滿洲에 미칠 餘暇가 없음을 利用하여 이들을 略取하여 歐洲各國에 侵入할 基底를 세워야 한다.”<sup>15)</sup>

는 것이었다.

西郷의 둘째의 論旨는

“內亂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밖(外)으로 옮기어 나라를 일으키는 遠略.”<sup>16)</sup>

을 삼자는 것이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이러한 征韓論의 論理는 日本의 內政上의 問題로 본다면, 自由民權思想과의 關聯에서 憲政論과 結付시킬수도 있고, 또는 日本의 “Nationalism”이나 國家權力構造論의 觀點에서 體系化할 수도 있으며, 또 征韓論을 反政府의 精神 = 國民抵抗의 精神 그리고 反政府의 實踐的「에네르기」源으로 보고 機能的으로 取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sup>17)</sup> 그리고 西郷이 죽음을 바라면서까지 「遣韓大使」가 되기를 自請했던 點에 대해, 當時 그가 큰

病에 걸려 때때로 어차피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異狀心理에서 나온것이라는 身体心理学的 解釈<sup>18)</sup>도 어쩌면 전혀 無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本稿의 觀點인 日本의 對韓觀이란 側面에서 볼때 西郷 등의 征韓論의 內容은 決코 그것이 例外的이거나 돌발적인 對韓觀이 아니었으며, 西郷의 征韓論을 前述한 木戶, 佐田, 森山 등의 征韓論과 그 本質을 같이하고 있다. 即 그것은 日本이 當하고 있는 外圧과 內亂의 危機를 극복하기 爲하여, 日本에 가장 가깝고, 列強의 힘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韓國을 列強에 앞서 攻取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비친 韓國은 日本内の 反政府運動의 울분을 處理하고 不平士族의 不滿을 解決하기 爲한 "Scape Goat"로서의 侵略의 對象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征韓論을 主張한 西郷一派가 岩倉, 大久保, 木戶 등의 反對論에 부딪쳐, 結局 下野하게 된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征韓論의 侵略的 性格이나 方法은 非征韓派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指觸되고 있듯이<sup>19)</sup>, 征韓論에 反對하였던 岩倉, 大久保, 木戶 등의 소위 "非征韓派"의 韓國觀이 西郷 등의 그것과 本質적으로 다른것이 아니었다.

1874年(明治7年) 10月23日, 岩倉太政大臣의 臨時代理가 見察한 岩倉自身の 所見書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維新以來 겨우 4~5년이 지났을 뿐으로 나라의 기틀이 아직 堅固치 못하오며 …… 지금은 아직 가볍게 外事를 피할 때가 아니옵니다 …… 朝鮮과 連興의 뜻을 끊어버리고 萬全을



保하여…… 目的을 定하고 方略廟算을 分明히 하고 其他  
船艦을 建設하고 兵食을 具하고 錢貨를 備하며 內政百般의  
調理등에 이르기까지 미리 其 順序 目的을 定하여……  
云云 20)

또한 大久保는 西郷이 죽은後, 자기와 西郷이 갈라서게 된것에 이  
렇다할 本質的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술회하고 있다. 21)  
소위 非征韓派의 對韓觀이 征韓派의 對韓觀과 本質的 差異가 없었  
다는 點은 무엇보다도 明治以後 가장 먼저 征韓論을 들고나온者가  
바로 木戶孝允이었다는 事實에서도 알 수 있다.

前述한 바와같이, 木戶는 1869年~71年 사이에 熱烈히 征韓을  
主張하였던 者인데, 그때에는 오히려 西郷隆盛이, 外征보다도 內治를  
整備하는 것이 急務라는 立場에서 木戶의 主張에 反對하였었다. 그  
러던것이 2年後 西郷이 征韓論의 「이니시어티브」를 잡자, 이번에는  
木戶를 비롯하여 大久保, 岩倉등이 前年の 西郷의 論擲에서 征  
韓論에 反對를 하였던 것이다. 22) 소위 非征韓派 역시 征韓 그 自  
체에 異見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方法과 時期의 早·晩에 異  
見이 있었을 뿐이다. 다시말하면, 征韓論者와 非征韓論者의 差異는  
對韓觀에 差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日本國內의 危機를 극복하는  
第1次的인 方法을 外征에서 찾느냐(西郷), 우선 「治內政을 第1着」  
으로 하느냐(木戶)하는 點과, 士族의 將來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西郷) 또는 農民亂의 危險性을 보다 重視하느냐(木戶)에 있  
었다. 23) 또한 時間의 흐름과 더불어 그들의 立場이 相互 뒤바뀌어

갔다는 점을 考慮하면, 그들간의 對立의 基本은 征韓의 主導權을 누가 잡느냐하는 對立으로서, 問題의 中心은 權力鬭爭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征韓派건 非征韓派건 그들의 對韓觀은 다같이 韓國을 平等, 友好의 國交를 맺을 相對國으로는 생각치 않고 日本内の 內亂을 防止하기 爲한 "Scape Goat"로서나, 日本의 國權을 擴張할 侵略의 對象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事實은 그후의 歷史過程에서도 곧 立証된다. 西郷이 征韓論에 敗하여 下野한지 不過 6個月後, 大久保는 台灣征伐를 實行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本質적으로 征韓論者였던 木戶로 부터까지 痛烈한 비판을 받을 程度의 暴挙였다.<sup>24)</sup>

또한 大久保의 台灣征伐의 基本目的이, 첫째로는 反政府的士族(특히 鹿兒島의 士族)의 懷柔, 둘째로는 琉球의 日·灣兩屬 問題를 武力으로 解決하려는데 있었던것<sup>25)</sup>이고 보면, 그것은 結局 西郷의 征韓論理를 우선 台灣征伐에서 實現한것 이라고 볼 수 있다. 台灣征伐에 臨한 大久保의 思考方式을 가르켜 "西郷보다도 더욱 「西郷的」이었다."<sup>26)</sup>고 하는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台灣征伐後 곧 1875年 日本은 江華島 事件을 일으켜 不平等한 韓·日修好條約을 強要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 江華島事件에 즈음하여 岩倉, 大久保는 勿論, 台灣征伐때에 參議의 職을 내걸면서 까지 反對하였던 木戶도,

"「平生 생각하던 征韓의 念 勃勃」이라던가, 「밖(外)에 一事를 만드는 때는 内地의 進歩도 많이 빨라지는 바가 있다」."<sup>27)</sup>

는 등, 그의 本來의 征韓論으로 돌아와, 對韓強硬論을 主張하였다. 뿐만아니라 많은 日本人들, 더우기 自由民權論者들까지도 韓·日修好條約 第1條에 「朝鮮은 自由之邦으로 日本과 平等한 權利를 保有한다」는 것을 論拠로 하여, 江華島條約을 平等하고, 韓國을 獨立國으로 地位向上시킨 條約이라고 보았다.<sup>28)</sup> 그러나 江華島條約의 不平等性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日本側이 “自由”나 “平等”이 아닌 表現을 明記한 것도 그들의 對韓觀을 말한 것이 아니라, 淸·韓宗屬關係를 否定함으로써 韓半島에서 淸國의 發言權을 봉쇄하고, 淸國에 대신하여 韓半島進出을 하기 爲한 伏線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다.

以上에서 日本의 明治維新以來 江華島條約에 이르기까지의 日本의 對韓觀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分명한 것은, 그때 그때의 日本內政上의 여러 事情에 依해 征韓을 主張하는 者가 바뀌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소위 現實的 政策施行으로서의 征韓實施에 反對를 하는 者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가 韓國觀의 本質面에서는 다 같이 征韓論者들이었다는 點이다. 韓國이 「隱遁國」의 긴잠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日本과 개국조약을 맺고 더우기 日本의 維新後의 發展에 關心을 갖고 接近하기 始作한 시기, 즉 韓·日兩國의 近代國家로서의 첫 關係가 成立된 時期의 日本의 對韓觀이 바로 以上과 같은 것이었다.

## 2. 壬午軍亂期 自由民權派의 韓國觀 .

앞節에서 考察한 征韓論을 明治政府 首腦들의 對韓觀이라 한다면, 自由民權派의 對韓觀은 日本在野勢力의 對韓觀이라 할 수 있다. 더욱기 壬午軍亂이 일어나기 바로 前해인 1881年은 近代 日本의 文物을 視察하기 爲한 大規模의 視察團인 紳士유람단의 日派遣과 韓國의 開化派의 中心人物이었던 金玉均의 第1次 日本訪問등에서 象徴되듯이, 近代化를 摸索하던 韓國이 日本과의 接觸을 頻번히 하던 時期였으며, 日本國內에서는 自由民權運動의 最大의 昂揚期였다. 따라서 이 時期의 日本自由民權派의 對韓觀은 日本의 在野民權勢力의 對韓觀의 本質을 理解하는데에 좋은 素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自由民權運動은, 近世 유럽의 데모크라시運動과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현저한 相違點中の 하나가, 유럽의 데모크라시의 理論과 實際는 個人主義思想과 密接한 關聯을 갖고 發展한데 對해, 日本의 自由民權運動은 國家主義的 危機를 強烈히 띄우고 있었다는 點은<sup>29)</sup> 자주 指摘되는 바와 같다. 바꾸어 말하자면, 羽島氏가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自由民權論은 明治天皇을 頂點으로 하는 家父長制的 構成을 갖는 國家의 權威를 對外的으로 確立하기 爲하여는, 그 手段으로서, 그러한 國家內部에 民權을 伸張하여야 한다는 主張”<sup>30)</sup>이었다. 自由民權論이 日本의 近代化에 미친 影響에 關하여는 여러가지 論議가 있지만<sup>31)</sup>

“自由民權은 征韓論의 信念에 依해 基礎가 마련되어 있었다.”<sup>32)</sup>

고指摘되듯이,自由民權論속에 처음부터 國權論的 要素가 포함되어 있었던 點에는 異論이 없는것 같다.

이러한 點은,自由民權論의 主張者들이 本來 強烈한 征韓論者들이었다는 歷史的 事實에서도 明白하다. 日本의 自由民權運動의 始作은, 1873年의 征韓論争에서, 敗退, 下野한 板垣, 後藤, 江藤등의 소위 征韓派가 다음해인 1874年 民選議院設立을 爲한 連白書를 提出하고 各地를 遊說하면서, 立志社, 玄洋社, 愛國社등의 政治團體를 結成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本來 強硬한 征韓論者였던 이들 民權論者들의 意識은, 民權은 國權에 從屬되며, 國權의 擴充에 依해 民權이 成立되며, 또한 對外發展이 國權을 實現하는 가장 有效한 手段이라고 생각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民權主張은 海外侵略, 즉 征韓論과 矛盾되기는 커녕, 오히려 征韓論에 依해 基礎되는 것이었다. 例를들면 江藤新平은 1874年 佐賀地方에서 征韓黨의 首領이되어 反政府運動을 일으켰는데, 그 聲明文 속에 다음과 같은 口節이 있다.

“朝鮮은 우리의 國權을 거부하고, 우리의 國使를 모욕하였다. 그 暴慢無禮함은 實로 말할 수 없고, 위로는 聖上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億兆에 이르기까지 前無한 大恥를 받았다. .... 云云.” 33)

初期 自由民權論者들의 韓國觀을 번거롭게 더 以上 列挙하지 않더라도, 위에 指摘한 初期民權論者들의 征韓論과의 內的關連에 關한 一般的 指摘만으로도, 우리는 初期 自由民權論者들의 對韓觀이 幕末

以来의 海外侵略論, 征韓論者들의 對韓觀의 延長線上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壬午軍亂의 前해인 1881年은, 在野政黨으로서의 自由黨의 結成에 상징 되듯이, 日本 自由民權運動의 第2의 그리고 最大의 昂揚期였다. 自由民權運動의 昂揚과 더불어 自由民權論者들속에 左右의 分派現象이 나타나, 自由民權左派의 意識속에는, 이제까지의 征韓論과는 다른 對韓 連帶意識이 엿보이기 始作한것도 事實이다.

外壓에 對한 危機意識에서, 從來의 征韓論者들이 韓國이나 余他의 아세아 諸國을 征服함으로서 歐美諸國에 對항하려 한데 對하여, 一部の 民權論者들의 意識속에, 韓國, 中國등과의 連帶에 依해 歐美諸國에 對항 하려는 意識이 鮮은것이다. 그러한 連帶意識은 例를 들면,

“東洋의 氣運을 挽回함은 實로 日, 支, 韓 三國의 交際如何에 存” 34)

한다거나

“我邦의 獨立을 鞏固히 하려고 바란다면, 区分한 小數에 關係함이 없이, 宇內의 大勢에 着目함으로서 東洋의 連衡을 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35)

라는 등의 主張에서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連帶意識은 具體적으로 充分히 成熟되지 못한채, 잠시의 觀念論으로 끝나고 말았다. 日本의 自由民權論이 最大의 昂揚期에서 急激한 衰退로 急轉落하는 分水嶺을 이루는 것은 1882

年이다.<sup>36)</sup> 1882年을 分水嶺으로 하여 自由民權論이 急轉落하게 되는 理由로는, 日本國內의 社會經濟的인 要因과 함께, 同年7月 서울에서 일어난 壬午軍亂의 影響을 들수 있다. 즉 이해에 日本國內에 인플레이션과 자본주의적 원시축적의 本格的인 開始로 因한 經濟變動에 따라, 당초 平凡한 社會階層의 連合戰線으로 出發한 自由民權運動 內部에 分解現象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무렵에 同年7月 서울에서 反日的인 壬午軍亂이 일어나자 日本에서는 大陸 특히 韓國에 關한 關心이 높아져 어느 研究者의 表現을 빌리자면 「강도적 支那略取論」과 「逃亡革命的 第2維新論」이 自由黨 內部에서도 勢力을 얻기 시작 하였다.<sup>37)</sup> 즉 이 무렵부터 自由黨 內部에 또다시 國權擴張論의 風潮가 퍼지기 始作하여 「海外雄飛」의 사상이 前面에 등장하여 1884年 드디어 民權運動의 母體로 되어있던 自由黨의 解黨에 이르르게 된다.

그러나 自由民權運動의 急激한 衰退에는 위에 指摘한 外的要因 以外에, 自由民權運動이 当初부터 그 內部에 征韓論的 國權意識을 內包하고 있었다는 點을 看過할 수 없다. 또한 自由民權論者들의 連帶意識에도 다음과 같은 矛盾을 內包하고 있었다. 첫째로, 自由民權論者들의 連帶意識은

“萬一 朝鮮으로 하여금 其諸國(英, 仏, 魯……引用者)의 나누어 領有하는 곳이 되게 한다면 그때를 當하여 我國人이 曆亡齒寒의 感情을 發하여도 때는 이미 늦다. ”<sup>38)</sup>

라는 主張이나, 또는 「魯, 淸의 萬藤은 容易하게 解決될 수 없다」

라는 論說<sup>39)</sup>에서 보듯이, 當時 紛糾中에 있던 露, 淸間の 紛爭이 解決되어 러시아가 그 余勢를 몰고 韓國의 8道를 蹂躪하기에 이르렀다. “그 禍가 波及되는 곳은 實로 測量할 수 없다.”<sup>40)</sup>라는 日本自體의 危機意識에서 出發한 것이었다. 따라서 列強의 侵略에 對抗하기 爲한 手段으로서의 소극적 連帶意識속에는 그들의 思想에 內在해 있던 征韓論的 侵略意識을 積極적으로 부정하는 兇想이 희박했을 뿐만 아니라, 狀況如何에 따라서는 侵略을 肯定할 수 있는 余地를 內包하고 있었다.

둘째로 民權論者들의 連帶意識속에는 日本을 아세아의 指導者로 보는 강한 優越意識과 韓國에 對한 蔑視意識이 殘存해 있었다. 그들은 淸國을 「頑迷固陋」한 나라로 보았고,<sup>41)</sup> 韓國을 「東洋中 가장 頑固한 나라」<sup>42)</sup> 또는 「東海의 僻隅에 沈淪한 一野帝國」<sup>43)</sup>으로 보았다. 또한 列強으로 부터의 危機意識에서 韓國의 獨立을 重視했을 때의 對韓觀역시

“朝鮮은 元來 宇內에 獨立할 수 있는 資力을 갖는者가 아니”<sup>44)</sup>라고 보고 따라서 東洋의 先覺者인 日本이 韓國을 잘 誘導하여 더불어 開明을 計劃하여야 한다<sup>45)</sup>는 盟主意識에서 韓國을 보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強한 指導者意識과 盟主意識에 基底한 連帶論은, 日本의 한 研究者가 指摘했듯이,<sup>46)</sup> 開明化에의 誘導라는 名目이나, 開明化를 돕는다는 意識下에 韓國에 對한 內政干涉이나, 侵略을 쉽사리 肯定할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었다.



自由民權運動의 内部에 内在하고 있던 이러한 矛盾과 制約性으로 因해, 自由民權運動은, 壬午軍亂이란 對外問題에 直面하자, 「國權을 保全한 然後에 民權을 保全할 수 있다」는 本來의 特徵, 即 國權을 爲한 民權이란 側面을 強化시켰다.<sup>47)</sup> 自由民權運動의 衰退와 더불어 그나마의 連帶意識 또한 衰退되고 連帶意識속에 内在되어 있던 侵略肯定意識과 盟主意識만이 남아, 大아세아主義者들의 侵略論을 合理化하게 된다.

1882年의 壬午軍亂에 對한 日本의 自由民權論者들의 主張에는, 크게 나누어 「朝鮮의 變報」<sup>48)</sup>라는 社說에 代表되는 賠償要求의 消極論과, 奧官健立이라는 自由黨員의 「征韓論」이라는 論說<sup>49)</sup>에 代表되는 積極的 武力 膺懲論의 두가지 論調가 있었다. 그러나 對韓 觀이란 觀点에서 보면, 이들 積極論과 消極論은, 各各 1873年(明治6年)의 「征韓派」와 「非征韓派」의 論理의 縮少版에 지나지 않았다. 즉 奧官의 「征韓論」은 韓國을 未開野蠻視하여 이를 膺懲함으로써 日本의 國威를 海外에 떨치려고 생각한 點에서<sup>50)</sup> 前年の 征韓論者의 對韓觀을 답습하고 있다. 또한 武力膺懲論 代身, 賠償要求의 消極論을 主張한 者들의 論擲도, 武力膺懲이 不當한 것은 主로 日本 國內政治의 未整頓과 戰費負擔問題<sup>51)</sup> 그리고 만약 日本이 勝利를 하더라도 露西亞의 干涉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點<sup>52)</sup>에 對한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그 論理와 發想이 前年の 非征韓派의 論理나 發想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1882年의 壬午軍亂을 契機로하여 日本의 自由民權運動은 그

本來의 矛盾과 制約性을 露呈시켜 國權論的 主張으로 轉換되고, 亞細亞에의 侵略, 韓國에의 干涉을 더욱 強調할 뿐이었다.

1884年 4月 11日부터 20日까지 5회에 걸쳐 게재된 『自由新聞』의 「朝鮮에 對한 政略을 論함」이란 社說은, 民權論의 侵略主義的 國權擴張論에의 轉落과 그러한 侵略主義的 對韓觀을 端的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朝鮮에 對한 政略을 論함」이란 社說의 要旨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東洋政略」은 무엇보다 「日本國의 利益을 本」으로하고, 「東洋의 利는 末」이라는 思考方式에서 推進되어야 한다. 그런데 現在 支那가 朝鮮을 從屬시켜 마음대로 暴威를 떨치고, 있으므로 日本의 東洋政略上 「朝鮮을 純粹한 獨立國」으로 만드는 일은 매우 緊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경우 「朝鮮을 獨立시켜 親交同盟을 맺는다」하더라도, 다른 한편에 있어 「我邦(日本)이 其(朝鮮)政務에 關與」함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라는”<sup>53)</sup>

것이였다. 이러한 基本的 立場에서 同 社說은 1) 中國軍隊를 韓地에서 물러가도록 할것, 2) 大院君의 幽囚를 풀고 歸國시키도록 할것, 3) 中國官吏로 하여금 一切 韓廷의 事務에 關與하지 않도록 할것등의 具體的 方策을 要求하고 있다. 또한 同年 9月 30日부터 10月 5日까지의 『自由新聞』의 「國權擴張論」의 要旨은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日本의 官民이 모두 마음을 內事에 쓰고 있으면 그것은 日本

국의 커다란 利害가 걸린 國權擴張을 緩慢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官民이 서로 軋轢을 일으키는 害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壯年有志들의 熱心을 內事로부터 外事로 돌려, 政府는 이것을 利用하여 國權擴張의 方法을 計劃할 수 있다면, 안으로는 社會의 安寧을 굳히고 밖으로는 國利를 海外에 펼칠수 있다. \* 54)

壯士輸出에 依해 國內의 改革과 海外 進出의 一石二鳥를 꿈꾼 점에서 征韓論의 發想 그대로이며, 韓國은 日本의 國權擴張을 爲한 侵略의 對象이거나 壯士輩의 輸出場으로 생각되었다는 점에서도 征韓論의 對韓觀에로의 完全한 復歸였다.

1884年의 甲申政變에 對한 日本自由黨의 參與計劃이나<sup>55)</sup>, 1885年 自由民權左派의 大井憲太郎에 依한 大阪事件등이 모두 韓國의 獨立, 開化派를 도와 韓國의 開明化를 돕는다는 名分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對韓觀이나 對韓政策의 本意는 日本의 國權을 擴張한다는데에 있었다. 그러한 意味에서 民權論者들은 明治政府의 國權擴張的 對韓政策이나 對韓觀을 一步 앞질러 主張한 것이었다.

自由民權 左派內의 “連帶意識”이란것도 그것이 征韓論的 國權意識에서 完全히 벗어나지 못했던 矛盾때문에, 自由民權運動의 調落과 더불어 점점 侵略的 側面만을 強化시켜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887年(明治20年) 玄洋社의 國權主義에로의 轉換으로 거의 完結되었다고 할 수 있다. 玄洋社의 後身이라고 할수 있는 黑龍會는 表面的으로는 역시 繼續 亞細亞民族의 「同文同種」이라던가

「提携」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러나 黑龍會는 日本의 匪細匪 侵略에 對한 批判은 커녕, 盟主意識에 立脚한 匪細匪諸國에의 干涉과 侵略을 促進시키는 先兵的 機關에 지나지 않았다.

### 3. 文明開化論者의 韓國觀 : 脫匪論

福沢諭吉(1834~1901)은, 近代日本의 代表的인 思想家였다. 一般的으로 文明開化論者로 불리우는 그의 思想體系는, 時期에 따라 많은 變化가 있어, 때로는 啓蒙主戰思想에 立脚한 民權論者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權力政治論에 立脚한 國權擴張論者이기도 했으며, 國內외의 政治的 狀況에 따라, 民權과 國權과의 均衡을 달리하는 政治論을 展開해 나갔다. 크게 보아, 그가 初期에는 自由主義的 民權論에 치중했으나, 後에는 점차 保守主義적 國權擴張論者로 옮겨 갔다는 것은 많은 研究者들에 의해 指摘되는 바와 같다. 어쨌든 그는 明治期 日本의 文明開化뿐만 아니라, 日本의 對外政策에도 큰 影響力을 發揮한 思想家로서, 日本人들의 亞細亞觀 韓國觀에도 直接 間接으로 많은 影響을 미쳤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의 日本人들의 意識構造나 對外觀의 根底를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또한 韓國과의 關連에서도 그는 1879年頃 부터 李東仁, 兪吉濬 金玉均 등의 開化派人士들과 直接, 間接으로 關連이 있었고, 또 開化派人士들을 日本 朝野의 人士들과 연결시켜 甲申政變에도 仲介者的 役割을 하였다. 이러한 理由들 때문에, 從來에는, 福沢이 韓國의

開化派를 도운것은 그가 眞心으로 韓國의 自立・獨立과 近代化를 도우려고 한것이며, 1885年 그가 「脱亜論」을 發表하여 轉身한 것은, 甲申政變의 失敗로 더 以上 韓國의 近代化를 期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理解되어 온 경향이 있다.<sup>56)</sup> 그러나 以下の 分析에서 보듯이 그것은 事實과 다르다.

福沢諭吉의 國際政治觀에 대하여는, 이미 그의 國際政治論이 時代環境에 따라 많은 變容을 받았던 關係로, 前後撞着되고 一貫性이 없으며, 또한 그의 國際政治論과 国内政治論사이에는 明白한 乖離가 있다.<sup>57)</sup>는점이 指摘되고 있다. 即, 福沢이 『學問のすすめ』(『學問의 권장』)이란 冊을 著述한 明治7年(1874年)頃까지는, 그의 思想体系는 大體로 啓蒙主義的 自然法思想을 근저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國際政治觀도 国内政治觀과 完全히 一致되는 것으로서,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自然法(道理)의 支配와 이를 前提로한 國家平等觀에 立脚하여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겨우 3~4年後에 著述한 『通俗國權論』속에서는 "might is Right"라는 主張을 내세웠고, 그후 더욱 權力政治的 國際觀을 강화해 갔다. 그의 아세아觀, 韓國觀도 이러한 그의 思想的 추리와 並行되어 展開되었다.

福沢의 아세아觀, 韓國觀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은 1885年 그가 發表한 「脱亜論」이다. 그런데 從來에 福沢이 「脱亜論」을 發表하여 脱亜로 轉身한것은 그가 直接, 間接으로 關与하면서 期待를 걸었던 韓國의 文明開化가, 1884年의 甲申政變의 失敗로 좌절되었기 때문이었던것처럼 主張하는 見解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事實과 다르다.

甲申政變이 일어나기 훨씬전인, 1881年 福沢은 「時事小言」이란 論文을 通하여, 東洋의 危機를 強調한 다음, 이 危機에 対処하기 爲해 日本이 淸·韓兩國에 對해 淸할 態度에 關해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武力으로 그들을 保護하고, 文으로 그들을 誘導하며, 速히 我(日本……引用者)의 例에 따라 近時의 文明을 導入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不得已한 경우에는 힘(力)으로써 그 進歩를 脅迫함도 可하다. 輔車相依나 脣齒相助는 同等한 나라 사이에는 通用되는 일이지만, 지금의 支那, 朝鮮에게서 依賴할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sup>58)</sup>

『通俗國權論』以後 이미 權力政治論으로 轉換한 福沢은, 위에 引用한 1881年의 「時事小言」에 이르러, 中國, 朝鮮을 同等한 國家로서가 아니라, 「武로 保護하고 文으로 誘導하여야 한다」는 優越意識과 더불어 「脫亞論」의 觀點에서 보고 있다.

反面 本來 自由民權論者였던 福沢에게, 이 무렵에는 韓國의 開化派에 對한 個人的인 同情의 念이 엿보이는 것도 事實이다. 1881年 慶尙義塾에 留學하게 된 兪吉濬과 柳定秀에 對해, 同年 6月 런던에 滯在中이던 小泉信吉과 日原昌造에게 보낸 書翰에서 福沢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今日 初旬 朝鮮人 數名이 日本의 事情視察을 爲해 渡來, 其中 壯年二名이 本塾에 入社하여 二名모두 우선 拙宅에 머무르게 하고, 친절히 誘導하고 있습니다. 實로 20餘年前 自身の 일을

생각하면 同情相憐의 念을 禁할 수 없습니다…云云 \* 59)

그러나 이미 民權論으로 부터 國權擴張論으로 思想的 轉換을 한 福沢이 韓국의 開化派를 도우려 한것은 以上과 같은 「센티멘탈리즘」에서가 아니었다. 1883年 金玉均, 朴泳孝등이 第2次 日本訪問에서 歸國할때 『漢城旬報』의 창간을 爲해 日本人 技術者 井上角五郎, 牛場卓歲, 高橋正言등을 雇傭하여 데리고 왔다. 이들을 開化派에 紹介한 福沢은 『時事新報』紙上에 「牛場君 朝鮮에 가다」라는 社說을 3회에 걸쳐 게재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今番 牛場君은 朝鮮政府의 招聘에 應하여 該國의 全權大臣 朴泳孝 一行과 함께 出國 赴任한다. ……日, 支, 韓 三國의 關係에 關하여 君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 ……지금 日本人의 支那에 대한 方略은, 財政의 整備, 軍備의 擴張이 必要함은 勿論이나, 이는 當局者가 할 일이고 우리들이 直接 關係할 바는 아니다. …… 國威를 海外에 떨쳐야 한다는 것은 恒常 사람들이 말하는 바이나, 國威를 떨치는 데에는 單지 兵略政略만이 아니라, 學問의 힘을 가지고 人心을 制함도 매우 重要하다. 이를 學問의 文權이라 稱하여도 좋다. ……云云 \* 60)

즉 福沢이 韓國開化派를 도우려한 것은 「兵略政略」에 依한 日本政府의 國權擴張을 「文權」으로 뒷받침하기 爲한 것이었다.

福沢論吉의 아세아諸國에 대한 蔑視觀과 侵略肯定, 脫亞의 경향은 1885年에 이르러 그가 發表한 諸論文에서 노골적이고 直說的인 形態로 나타났다. 먼저, 1885年에 發表한 「脫亞論」은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우리 日本의 国土는 亜細亞 東邊에 處해 있기는 하지만, 그 民族의 精神은 이미 亞細亞의 固陋를 벗어나 西洋의 文明에 옮겨졌다. 그러나 여기 不幸하게도 近隣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는 支那요, 또 하나는 朝鮮이다. 이 두나라의 人民도 古來 아세아流의 政教風俗에 依해 生活하였음은 우리 日本國民과 다르지 않으나, 그 人種의 由來를 달리 하는지 또는 같은 政教風俗中에 있으면서도 遺傳教育의 旨를 달리 하는지……이 두나라의 녀석들은(ものども), 一身에 關해 또 一國에 關해 改進의 道를 알지 못하고……그 古風古習에 戀戀하는 情은 百千年의 옛과 다름이 없다. ……지금 支那, 朝鮮은 우리 日本國을 爲해 一毫의 援助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西洋文明人의 눈으로 보면 三國의 地 相接함 때문에 때로는 이를 同一視하고, 支, 韓을 評하는 價로서 우리 日本에 命하는 意味없지 않다. ……우리 나라는 隣國의 開明을 기다려 더불어 아세아를 일으킬 猶豫가 없다. 오히려 그 伍를 脫하여 西洋의 文明國과 進退를 더불어 하고, 支那, 朝鮮에 接하는 法도 隣國이라하여 특별한 待遇를 할것이 아니라, 바로 西洋人이 이를 接하는 風에 따라 處分하여야 할 따름이다. 惡友와 親한 者는 惡名을 免할수 없다.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아세아 東方의 惡友를 謝絶하는 바이다. 61)

福沢은 弱小國인 中國과 韓國을 단지 帝國主義的 權力政治의 觀點



에서의 「弱小国」으로서만이 아니라 「惡友」로 規定하고, 「亞細亞東方의 惡友를 謝絶」하였을 뿐만 아니라,

“西洋과 더불어 奮起하여 더불어 中原의 사슴(中國과 韓國을 가르킴……引用者)을 쫓을 뿐이다. 이 또한 勢의 어쩔수 없는 일”<sup>62)</sup>

이라고 하였다.

福沢은 또 同年 8月 13日字『時事新報』에 「朝鮮人民을 爲해 其國의 滅亡을 賀함」이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그 속에서 福沢은,

“「朝鮮政府가 人民의 生命 財産을 지킬수 없으므로, 오히려 強大文明國의 保護를 받고, 生命과 財産만이라도 安全하게 하는 것이 不行中의 多行」이라고 하고, 「故로 나는 朝鮮의 滅亡할 時期가 멀지 않다고 察하여……그 國民을 爲하여는 그것(朝鮮의 滅亡……引用者)을 賀하려는 者이다」<sup>63)</sup>

라고 結論지었다.

福沢의 「脱亞論」은 近代日本의 對亞細亞觀(韓國觀)을 상징하고 그후의 日本의 亞細亞 諸國과의 關係를 예고한 것이었다. 近代日本의 發展過程이 社會, 經濟, 文化, 政治의 諸分野에 걸쳐 脱亞=西歐化의 過程이었던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脱亞」의 論理는 日本의 發展 코스를 가르키는 意味에서는 文字 그대로 「脱亞」였으나, 韓國觀(亞細亞觀)이나 對韓政策(對亞細亞政策)의 側面에서는 「脱亞」가 아닌 「侵亞」의 論理였다. 즉 그것은 앞서 引用한 「脱亞論」의 一節에서도 나타나듯이, 日本이 西歐文明國으로

부터 「惡名」을 免하기 爲하여 「亞細亞의 惡友를 謝絶한다」는 消極的인 斷交만이 아니라, 보다 積極的으로는 「西歐人과 進退를 더불어 하고……西洋人이 이 (中國과 韓國)를 接하는 風에 따라 処分」하여야 하며, 「西洋과 더불어 奮起하여 中原의 사슴을 쫓을 뿐」이라는 「侵亞」의 論理였다. 뿐만 아니라 「朝鮮人民을 爲해 其國의 滅亡을 賀한다」라는 表現에 나타나듯이, 文明의 美名下에, 侵略을 促求, 擁護하고 正當化하는 論理였다.

近代日本의 亞細亞諸國과의 關係는 福沢이 主張한 線에 따라 전개 되었다. 「脱亞論」 即 「侵亞論」은, 1901年 福沢이 設한 後에도 日本의 對亞細亞觀, 對亞細亞政策의 根幹을 이루어 왔고, 특히 日帝가 韓國을 植民地統治한 時期뿐만 아니라, 第2次大戰後 오늘에 이르기 까지 또 줄기차게 殘存해 있는 「植民地近代化論」의 重要한 論理的 根柢를 提供하고 있다.

#### 4. 소위 “連帶論者”의 韓國觀: 樽井 藤吉의 『大東合邦論』과 韓·日合邦

日本人들의 韓國觀의 傳統을 論할때 자주 拳論되어온 것으로서 樽井藤吉의 『大東合邦論』이란 것이 있다. 이 『大東合邦論』에 對한 從前의 評價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이 『大東合邦論』이야말로, 韓·日兩國의 連帶意識을 나타낸 淸로서 이에 對한

“解釈의 變遷은 別問題로 하고, 「對等合邦」이란 主張 그

自体는 「空前絶後の 創見」" 64)

이며,

" 樽井은 설마 後年에 그를 侵略思想의 同伴者로 이끌어 넣는  
思想家가 나타나리라고는 豫期하지 않았을 것 " 65)

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近年에 이르러 旌田氏의 一連의 論文<sup>66)</sup>에서 批判이  
加해졌다.

그러나 近年에 覆刻出版된 『大東合邦論』의 編集部記인 「大東合  
邦論覆刻에 際하여」에서 보듯이

" 樽井藤吉의 『大東合邦論』은, 같은무렵 즉 明治 18年 3月 『時事  
新報』의 社說로 發表된 福沢諭古의 「脱亞論」에 対応하는  
內容을 가진 亞細亞主義의 論策 " 67)

이라는 主張이 되풀이 되고 있다.

福沢의 「脱亞論」이 단순한 아세아로부터의 「離脱」이 아니라  
「侵亞」의 主張이었음은 前節에서 보아온 바와 같다. 樽井의  
『大東合邦論』은 그 表面的인 " Slogan "은 福沢과 달랐다. 그러  
나 그것은 과연 韓國과의 참된 連帶意識에 立脚한 것이었을까?

樽井 自身の 『大東合邦論』 「凡例」에 依하면, 『大東合邦論』의 草  
稿가 完成된 것은 1885年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出版되지 못한채  
그후 곧 樽井이 東洋社会党 結成事件, 大井憲太郎의 大阪事件등에  
關連된 혐의로 체포, 투옥되어, 그간 草稿를 紛失하였다고 한다.

1890年( 明治 23年 )에 再起草하여, 『自由平等經論雜誌』에 發表하였

다 ( 12 篇 ) , 그 후 다시 4 篇을 加筆하여 , 一卷의 冊으로 合하여 1893 年에 出版한 것이 『大東合邦論』의 初版本이다.<sup>68)</sup>

『大東合邦論』의 要旨는 , 白色人種인 歐美列強의 아세아 侵略에 對抗하기 爲하여는 黃色人種인 아세아諸국이 단결 , 聯合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 具體的으로는 韓國과 日本이 合하여 「一大聯邦」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合邦國의 國軍의 名稱도 兩國의 旧軍에 依하지 말고 , 公정을 期하기 爲해 「大東國」으로 하여야 한다<sup>69)</sup> 는 것이다.

또 韓·日兩國을 「大東國」으로 合邦하는 「聯合方法」에 關하여는 “抑合邦也者。協議立約。以合各邦。使各邦人民。得參共合成一國之大政者也。”<sup>70)</sup>

라하여 , 兩國人民의 平等한 參政權을 論하고 있었다. 이어서 , 「大東國」内部의 韓·日兩國의 地位에 關하여도

“而其要在使 各邦自主自治之權。歸于均平。若甲邦獨全其權。而乙邦不能全之。則其乙邦不異亡滅。兩邦不行其權。”<sup>71)</sup>

이라하여 兩國의 平等한 地位를 내세웠었다. 따라서 兩國의 君主의 地位도 “其民互尊奉各邦之君者也”<sup>72)</sup> 라 하였다.

樽井이 『大東合邦論』의 初版本에서 내세웠던 韓·日兩國의 平等한 地位와 平等한 參政權에 依한 「大東國」에로의 「合邦」은 , 1910 年의 兩版本에 이르러 , 樽井 自身에 依해 否定되지만 , 1893 年의 初版本에 있어서도 , 樽井은 韓·日兩國의 平等한 連帶意識과는 矛盾된 內容을 內包하고 있었다. 즉 , 樽井의 『大東合邦論』에는

全篇을 통하여 侵略을 否定하는 發想은 窺보이지 않는다. 本來 그는 冷嚴한 權力政治論者였다. 그는 日本이 歐美諸國과 「平衡」을 維持하는 方策은 「開明」만으로는 「文弱」함에 홀려, 「優勝劣敗」와 「弱肉強食」의 「天數」를 免치 못한다고 보는 “리얼리스트”였다. 이어서 그는

“今觀歐洲形勢，有屬國數十倍于本土者多矣。我國……未有一屬國。

自今以往，將向何地擴境土乎。”

라 하였다. 즉 그는, 日本도 歐美諸國과 마찬가지로 屬國을 갖고 싶지마는, 南洋諸島나 南北아메리카 및 아프리카諸國에는, 이미 白人 이 占有하여 버렸고, 「寒地熱國」은 日本人에게 適合한 곳이 되지 못하므로, 韓國과 合邦하여 強大國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74)</sup>

그는 그 나름대로 韓國의 歷史를 回顧하면서 新羅統一 以來 自主之氣象이 오히려 不進한 原因은 “因其不親日本而親漢土地”<sup>75)</sup>라 하여 韓國이 中國과 손을 끊고 日本과 親交할 것을 強調하였다.

그는 淸國의 朝鮮에 對한 干涉은 強烈히 批判하면서도 日本의 韓國에 對한 態度에 對하여는, 日本이 韓國의 自主獨立을 도왔다고 主張하고 있다. 古代로 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의 日韓關係에 關한 理解가 日本의 國學者들의 主張을 根底로 하고 있는것은 차치하고라도, 江華島條約에 關하여도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先年有江華島之事，理當以兵問之，然事不出此，而誘之以修好和親。

論之以宇內形勢，遂進隸屬之位地，為自主之大朝鮮國，……願使朝鮮至稱大朝鮮國者，日本誘導之力也。”<sup>76)</sup>

즉 江華島事件은 어디까지나 日本이 韓國과 和親修好條約을 맺고 世界情勢를 알려, 隸屬的地位에서 自主獨立國을 만들기 爲한 것이었으며, 그 結果 「朝鮮」이 「大朝鮮國」을 稱하게 되었는데, 이는 日本이 誘導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미 日本의 한 研究者에 依해서도 指摘되었듯이,<sup>77)</sup> 樽井은 日本의 膨脹에 反對者가 아니었으며, 때가 오면 「征韓論」의 主張者로 轉換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었다. 『大東合邦論』을 著述하기 까지의 樽井의 經歷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樽井의 經歷을 살펴보면 그가 일찍부터 征韓論者인 西郷隆盛의 追從者였다는 것이 눈에 띄인다. 그는 1877年(明治10年) 西郷의 西南戰爭에 呼応하기 爲하여 拳兵하였다가 失敗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음해인 1878年부터 만 3年間 그는 韓國近海에서 無人島를 찾는 탐험을 繼續하였는데, 그 目的은 無人島를 占領하여 同志를 集結시켜 그곳을 征韓의 根拠地로 삼으려고 했었다는 것이다.<sup>78)</sup>

無人島의 탐색에 失敗한 後의 樽井의 經歷을 보아도, 그는 1884年 甲申政變에 失敗하고 日本에 亡命中이었던 金玉均을 利用하여 韓國에 侵入할 생각으로, 玄洋社의 浪人들을 韓國에 보낼 計劃을 세워 頭山滿 등의 大陸浪人과 交渉하고, 그 運動資金의 調達을 爲해 東奔西走하였다.

이때는 이미 그가 『大東合邦論』의 草稿를 完成한(1885年) 後였다. 이러한 그의 經歷으로 보아도 그가 『大東合邦論』을 著述한 意中の 真意를 엿볼수가 있다.

『大東合邦論』의 “連帶意識”의 背後에 潛在하고 있던 征韓의 意圖는, 『大東合邦論』의 再版에 즈음하여 樽井 自身에 依하여 明白히 露呈되었다. 樽井이 『大東合邦論』의 再版本을 世상에 내놓은 것은 1910年 6月, 즉 韓·日合邦 直前の 일이었다.

『大東合邦論』의 再版本을 初版本과 比較하여 보면, 그 本文에는 變化가 없고, (本文 欄外의 註에는 많은 變化가 있다) 附錄과 卷頭, 卷末에 削除되거나 附加된 부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再版本의 卷頭的 「再刊要旨」와 卷末의 「巴水漁人寄書」는 樽井의 思想의 變化랄까, 보다 正確하게는, 初版本의 背後에 숨겨져 있던 『大東合邦論』의 征韓的 性格을 露呈시킨 것으로서, 『大東合邦論』의 全內容을 規定하는 것이었다. 再版本의 卷頭的 「再刊要旨」의 冒頭に 다음과 같은 一節이 있다.

“本書題稱合邦論者, 概括聯合諸法, 而言之耳. 非欲特探捫合邦制度也. 頃韓人提議合邦. 餘以為韓人所謂合邦者. 雖奉戴我日本天皇為合成國統君. 而欲使韓室之鼎命依然不變者也. 是非合邦制. 聯邦制也. 而稱之合邦. 亦概括之言而已矣.” 79)

이것은 樽井이 『大東合邦論』의 初版本에서는 아무런 前提없이 認定하고 있던 韓·日兩國의 君主의 平等한 地位에 대하여, 間接的인 表現을 벌려 유보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같은 「再刊要旨」의 第四項의 記述을 보면 樽井의 意中이 더욱 分明해 진다.

“餘數年前欲與友人研究聯邦制度，私草其條規概要，未公乎世，會有誤之韓文，而頒布世間，煽動頑民者，是以間或誤認餘之私稿，以為聯邦之正條，可謂妄矣，今臨再刊本書，欲修正前稿附之卷末，以供讀者之參考，然恐有復不辨私稿與公文之別者或生物議，乃遂省略之。”<sup>80)</sup>

위의 記述로 보아 樽井은 1910年의 再版本을 發刊하기 數年前까지만해도, 아마도 韓·日 兩國(君主)의 平等한 地位를 前提로 한 「聯邦制度」를 생각하고 있었던것 같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韓文」으로 번역하였던것 같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짐작컨대 韓·日合邦을 推進하던 日本人이나 또는 一進會의 關連者들이 樽井의 論理를 韓·日合邦推進의 正當化의 論拠로 利用하려고 하였던것 같다. 이에 대해 樽井은 그가 『大東合邦論』의 初版本이나 또는 問題가된 「聯邦制度」研究에서의 韓·日兩國의 平等한 地位에 依한 「合邦論」을 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行爲는 「頑民을 煽動」하는 것이고, 자기의 「私稿」를 「聯邦의正條」로 誤認하는 것이라고 극구 부인 하였다. 즉, 이 단계에 이르러 樽井은 자기의 『大東合邦論』이 韓·日兩國의 平等한 合邦을 主張한 것이라고 “誤解”되거나, 그러한 論拠로 利用되는것 까지를 꺼려서, 前年의 「私稿」를 修正하여 『大東合邦論』의 卷末에 附하려 하였으나, 그 또한 物議를 일으킬것 같아 省略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樽井의 意中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위와같은 間接的인 表現以外에도, 樽井은 「再刊要旨」의 第三項에서 韓國人의 參政權을 明白히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縱令雖日韓聯合之約成，亦不可使韓人遂參與其合成國之大政也。何者，現今韓國立於我保護之下，而每歲受一千餘萬金之補助，其富力尚未能分擔合成國政費也明矣。……故欲協定聯合條規須先不可不立待其富力充實，而至分擔政費之日，始使其國民參與政權之約，是當然之事理也：81)

이것은, 앞서 引用한 바와같이 『大東合邦論』의 初版本에서

“抑合邦也者，協議立約，以合各邦人民，得參其合成一統國之大政者也”82)

(「聯合方法」)라 하여 樽井 自身이 傍點을 붙여가며 強調하였던 韓·日兩國國民의 平等한 參政權에 對해, 再版本을 發刊함에 臨하여는 韓國國民이 「政費의 分擔」能力이 없다는 구실로 그 能力을 갖출때 까지 參政權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條件을 붙임으로서, 實質的으로 韓國國民의 參政權을 拒否하고 있는 것이다. 또 初版本의 「聯合方法」에서 聯合의 요체는 各邦으로 하여금 「自主自治之權」을 갖게 하고 「均平」을 꾀하여야 하는데, 그 理由는

“若甲邦獨全其權，而乙邦不能全之，則其乙邦不異亡滅”

이라 하였던 點을 생각하면, 樽井은 『大東合邦論』의 再版本에서 韓國의 君主權을 留保하고 韓國國民의 參政權을 拒否함으로써, 그는 그가 韓·日兩國의 平等한 地位의 「合邦」이 아니라, 日本에 의한 韓國侵略과 韓國의 滅亡을 主張하는 者임을 自認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樽井의 思想의 變化라기 보다는 그의 사상의 必然的 도달 點으로서, 그의 소위 “連帶意識”에 처음부터 內在하고 있던 征韓 的侵略論의 露呈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그가 『大東合邦論』의

初版本을 準備했던 1885年에서 1893年까지는, 日本의 国力이 아직 아세아 諸國에의 侵略을 積極적으로 表明할 수 없었던 時期였다. 그가 征韓的 韓國진출의 꿈을 뒤로 돌리고, 韓國과의 對等한 形態의 「合邦」과 中國과의 「合縱」을 구상하였던 것도 그러한 時代的狀況의 制約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日本은 日淸・日露戰爭의 勝利를 거쳐 韓半島에서의 獨占的 支配權을 確立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1910年에 出刊된 『大東合邦論』의 再版本에 나타난 梅井의 對韓侵略思想은 위와같은 客觀的狀況의 變化에 힘입은것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基本思想의 露呈에 지나지 않았다.

『大東合邦論』이 日本의 韓國併吞을 正當化하는 觀念的 道具로 利用되는 것은 必然的인 歸結이었다. 그것은 一見 韓・日兩國의 對等한 「合邦」이니 “連帶”니 하는것을 내세우고 있는 側面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日本의 韓・日合邦 추진을 正當化하는 理論的道具로 化하기 쉬웠던 것이다. (梅井, 自身은 合邦 直前に 이르러 『大東合邦論』을 노골적인 併吞의 論理로 바꾸고 있지만) 實際로, 이 『大東合邦論』은 日本의 韓國併吞을 爲해 大活躍을 한 黑龍會의 內田良平뿐만 아니라, 그의 앞잡이로 活躍한 一進會의 李容九나 宋秉畷등에게 共鳴되어 韓・日合邦을 促進시키는 理論的根拠가 되었다.

#### IV. 맺는 말

— 韓國觀의 社会心理学的 特性과 그 問題点

(1)

以上에서 우리는 近代以後의 日本人들의 對韓觀의 傳統을—「征韓論」—「自由民權論」—「脱亞論」—「大同合邦論」등을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近代以前의 日本人들의 韓國觀의 傳統中에는 江戸時代의 對韓觀에 나타나듯이, 한편에서는 韓國人이나 韓國文化에 대한 尊敬이나 好感을 나타내는 것도 있었다.<sup>1)</sup> 이것은 李用熙教授가 지적했듯이 明治維新 以前 즉 東亞세아의 文明의 中心이 中華大陸에 있었던 時期에 儒敎文明圈의 가장 邊境에 있었던 日本이 邊境優越文明國이었던 韓國에 대한 「해바라기」現象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그러나看過할 수 없는 것은 日本의 古代國家 形成期로부터 이미 韓國에 대한 優越感과 경멸감이 形成되고 있었다는 點이다. 특히 이러한 日本人들의 對韓觀의 問題點은 그것이 단순한 경멸감이나 優越感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日本의 韓國에 대한 侵略과 支配를 고취하거나 正當化하려는 것이었다는 點이다.

이러한 경향은 江戸時代의 國學者들에 의해 強化되었고 明治以後에는, 從來의 神話나 伝說에 입각한 日本의 建國改念에 근거한 假說的인 우월의식에다, 西歐化에 一步 앞섰다는 文明論的 우월의

식까지 添加되었다.

그리하여 明治以後의 各種形態의 對韓觀은, 各各 그 立論의 根拠나 形態는 다르나 모두가 征韓論的 韓國觀에 歸着하는 것이었다.

이미 살펴 온 바와 같이, 近代以後 日本의 最初의 對韓觀이었던 征韓論은 「內亂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밖으로 돌리는 遠略」과 아울러 「海外雄飛」의 對參으로서의 對韓觀이었다.

非征韓派의 對韓觀이 征韓派의 그것과 本質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도 살펴다.

또 自由民權論者들의 對韓觀 역시 本質적으로 征韓的이었다. 自由民權左派안에 一時的으로 韓國과의 延帶意識이 싹트는 것 같았으나 이 또한 征韓論的 對韓觀을 充分히 脫受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日本에서의 民權運動의 調落과 더불어, 韓國에의 侵略을 肯定하는 思想上로 復歸하고 말았다.

日本의 文明開化의 先覺者였던 福沢諭吉의 脫亞論은 文明의 美名下에 侵亞를 主張하고 正當化하는 것이었다. 또한 福沢와는 正反對로 表面的으로는 脫亞가 아닌 韓·日兩國의 「大東國」에의 合邦과 淸國과의 「合縱」을 主張하였던 「大同合邦論」도 本質적으로 連帶意識을 가장한 征韓論이었다고 할 수 있고, 적어도 그 歷史的 役割은 그러한 것이었다.

近代以後 日本人들의 對韓觀中에는, 以外에도 明治末年 社會主義者들의 對韓觀, 大正 데모크라시 時期의 人道主義者들의 對韓觀, 그리고 韓日合邦後에 強化된 大아세아主義, 日鮮同祖論, 滿鮮史觀등이 있다.

이들 中에서 大正期の 人道主義者들의 對韓觀과 같이 과거 江戸時代의 유학자들에 의한 韓國의 文化와 學問에 대한 尊敬과 好感, 그리고 一時的으로나마 自由民權左派안에 싹뻗던 連帶意識의 傳統을 이어 받아, 韓國의 藝術을 通해 韓國民權과 文化를 再發見하려는 努力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好意的 對韓觀은 극히 부분적인 少数人의 對韓觀에 지나지 못했다.

日帝時代に 접어든 後의 日本의 對韓觀에 관하여는 評論을 略하기로 하나, 日鮮同祖論과 大아세아주의의 對韓觀은 「日本書記」「古事記」以來의 日本의 優位를 전제로 한 韓·日兩國의 근친성, 一體性에 대한 主張과 江戸時代의 國學者들의 對韓觀의 傳統을 이어 받은 植民統治 正當化의 理論이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또한 滿鮮史觀은 日鮮同祖論을 否定하였다는 點에서는 進歩였으나, 同時에 그것은 韓國歷史의 自主性을 否定하고 韓國史의 他律性을 강조하였다는 點에서 또 하나의 植民史觀이었다.

이들 各種形態의 對韓觀의 공통점은, 그 모두가 韓國이 無禮하다는 口實으로 日本의 國內問題를 解決함과 同時에, 海外雄飛의 膨脹을 꾀하기 爲한 侵略의 대상지로 보거나, 또는 韓國이 未開하여 自主自立할 수 없으므로, 日本의 支配下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第2章에서 考察한 第2次大戦以後의 日本人들의 對韓觀의 「스테레오타이프」에 나타난 否定的 「이미지」는, 近代以後 日本의 對韓觀의 傳統이 모두가 韓國을 無禮하다거나 未開하다고 보아 韓國(人)에 대한 蔑시관과 輕蔑감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口實下에

韓國에 對한 侵略을 高취하거나 正當化하는 것이었다는 事實과 無關하지 않다.

第2次大戰에서의 敗戰以後 日本에서는 民主化의 進展과 더불어 軍國主義, 植民主義에 對한 비판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높아진 것도 事實이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日本 지식인들의 韓國觀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은 과거의 傳統的 韓國觀으로 부터 과연 얼마나 탈피된 것인가를 살펴볼 必要가 있으나, 이 問題에 對한 本格的인 考察은 本稿와는 別個의 또 하나의 作業 과제로 남기기로 하자.

그러나 이미 本稿의 第2章에서 살펴본 戰後 日本人들의 韓國觀의 「스테레오타이프」는, 民主化가 進展되고 反軍國主義가 主唱되고 있는 戰後의 日本에도 아직도 韓國人에 對한 경멸과 嫌惡感이 뿌리깊게 지속되고 있다는 點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日本人들의 韓國(人)에 對한 偏見과 差別感은 一般民衆의 의식속에 뿐만 아니라 旧制高卒 以上の 學歷을 가진 인테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事実は 我妻, 米山氏의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다.

더우기 問題가 되는것은 日本人들의 韓國人에 對한 偏見과 差別이 日本人들의 의식의 問題로서만이 아니라 日本社会에 구조化 되어 있다는 點이다. 過去 36年間の 植民地 통치의 결과 日本에 60萬을 넘는 우리同胞가 生存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들의 대부분은 日帝의 植民地 統治로 因해 日本에 居住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歴史的 背景을 생각할 때, 在日韓國人の 問題는 余他の 外國人問題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在日同胞가 日本社会로부터 人種的 偏見뿐만 아니라 日本社会에서 구조

적으로 차별되고 있다는 것은 公知의 事實이다. 例를들면 韓国人이었던 父親과 日本人 女性과의 사이에 出生한 사람이 家族이 모두 日本에 귀화하여, 本人은 日本人이라고 생각하고 成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大學卒業後 취직시험의 面接에서 戶籍抄本을 본 会社側이 “韓国人”(조선人)이라는 理由로 不合格시킨 例나, 비슷한 처우에서 사범고시에 合格하였으나 임관을 거부당해 재판을 벌인 青年의 例등은 특별한 조사를 따로 하지 않은 筆者로서도 적지 않게 알고 있다.

이러한 事例는 마치 亞메리카 黑人에 대한 白人の 편견이나 유태인에 대한 나치 政權下의 獨逸人の 감정 같은 구조적 差別과 本質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역시 日本人들의 韓国人에 대한 民族的 偏見과 差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제 本稿에서 考察한 日本人들의 韓國觀의 特徵을 社会心理学的的 觀點에서 부연 하기로 하자

近代以後 日本의 對韓觀의 根幹을 이루는 征韓論의 論理는 첫째로 征韓에 依해 「內亂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밖으로 돌리는 速略」으로 삼고 둘째로 아울러 「海外雄飛」를 겸하자는 것이었다.

一般的으로 人間이나 社会의 行動을 心理学的으로 表現하자면 「欲求(緊張)」→「行動阻止(規範習得 등의 社会化過程)」→「欲求不

滿 ( Frustration ) 」→「攻擊的行動」→「緊張緩和」라는 圖式으로 表現할 수 있다.

征韓論的 韓國觀은 日本社会의 (不平士族의) 欲求不滿에 의한 攻擊的行動 (內亂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방출시켜 日本社会 自体의 緊張을 緩和시키기 爲한 対象 (不滿解消의 出口)으로서의 韓國觀이었다.

즉 日本에게 있어서의 韓國은 社会心理学에서 말하는 「欲求不滿의 轉出」의 対象이었으며, 政治学的으로는 日本国内政治의 矛盾을 解決할 「Scape Goat」였다. 더우기 그것은 단지 心理的, 意識의 레벨에서의 欲求不滿의 轉出의 対象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海外雄飛」思想과 결부되어, 韓國을 부단히 侵略의 対象으로 보아 왔는데에 日本人의 韓國觀의 特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韓國人の 日本觀에도 日本人의 韓國觀에 대한 受動的 反映으로서 日本(人)을 欲求不滿의 轉出이나 증오의 対象으로 삼아온 경향이 없지 않으나, 그것은 주로 心理的인 레벨의 問題였지, 對日侵略論이나 「海外雄飛」論과 결부되지는 않았다. )

또한 「脱亜論」이나 「大東合邦論」의 論理는 그것이 直接的으로 日本社会의 欲求不滿의 轉出의 論理는 아니었으나, 日本의 危機를 극복하는 方法을 韓國(아세아)에 대한 侵略에서 찾았다는 点에서는 征韓論的 侵略思想과 連結되는 것이었다. ( 「脱亜論」이 「脱亜」에 그치지 않고 「侵亜」의 論理였다는 点과 「大東合邦論」의 連帶論이 「征韓」意識의 基低위에서 있었다는 点은 本文에서 論



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各種形態의 傳統的 韓國觀이나, 第2次大戰後의 韓國觀의 「스테레오타이프」의 根底에 깔려 있는 韓國(人)에 대한 嫌惡와 경멸 그리고 差別意識이 日本社会内部의 政治的, 經濟的, 社会的 矛盾이나 危機를 外部 즉 韓國(人)에게로 轉出되어 나타나는 例를 韓國에 대한 直接的인 侵略行爲 以外에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그 가장 代表的인 例는 아마도 日帝時代의 關東大地震때의 韓國人에 대한 무차별 대량 학살 事件일것 같다. 日本内の 경제적불황과 地震으로 인한 社会的 不安에서 생긴 欲求不滿이 일부의 無分別한 者들의 韓國人( 당시의 朝鮮인 )에 대한 무근한 「데마고그」를 계기로 하여 소위 「조선인 사망」이란 形態로 轉出되어 나타난 것은, 그만큼 日本 社会内에 韓國人에 대한 偏見과 嫌惡感이 팽배해 있었던 結果이기도 하다. 日本人들에게 있어서의 韓國(人)은 마치 美国 南部의 白人에게 있어서의 黑人이나 나치政權下의 독일人에 있어서의 유대인과도 같은 存在였다고 할 수 있다.

第2次大戰後 오늘날 日本의 「저널리즘」에서 流行하고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 韓國」이라는 表現은 韓·日兩國間의 歷史的 關係뿐만 아니라, 社会心理學的 側面에서의 兩國關係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欲求不滿의 轉出」의 対象, 즉 「Scape Goat」는 먼곳에서 求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찾기 마련이다. 따라서 韓國이 日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된 것은 「가깝기 때문에 먼 나라」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欲求不滿의 轉出」

이나 증오의 対象, 또는 侵略의 対象을 求해 온 것은 歴史的으로 韓國側이 아니고 主로 日本側(특히 近代以後)이었다는 点에서, 韓·日兩國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된 責任의 많은 부분은 日本側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第2次大戦 直後, 日本에서 韓國人(조선人)을 가르켜 「第3国人」이라고 지칭한 表現에도 日本人들의 韓國觀에 内在해 있는 心理學的 特性을 엿볼 수 있다.

第2次大戦 以前에도 日本人들은 自國人들을 「内國人」이라 칭하고 韓國人을 「鮮人」이라 칭하여 差別하고 멸시해 온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戰後에 등장한 「第3国人」이란 表現은 偏見과 差別意識의 社会心理學的 逆說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日本은 2次大戦의 敗戰으로 이제까지 「歐米畜生」이라하여 意識的으로 멸시해오던 歐美人(이것은 主로 政治的「이데오로기」에 의해 强요된 적대의식이었지만)에 대한 열등의식에 사로 잡혔다. 그런데 이들 歐美人을 지칭하는 말이 「外国人」 또는 「外人」이었으므로 韓國人을 歐美的 「外人」(尊敬의 뜻을 包含한 表現)과 區別하기 爲해 「第3国人」이란 表現을 고안해 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歐美人에 對한 劣等意識에서 생기는 欲求不滿을 轉出시킬 心理的 必要性에서 創出되어 나온것이 「第3国人」이란 表現이었다고 할 수 있다.

Adorno T.W. 와 Frenkel-Brunswik를 비롯한 學者들의 有名한 研究<sup>3)</sup>에서도 指摘되고 있듯이, 他人(他集團 또는 他國)에 對한

輕蔑感은 自身(自國)의 劣等感을 補償하려는 心理的 表現인 것이다. 自我가 未熟한 「權威主義的 性格」의 所有者는 他人이나 他集團을 낮추어 보고 그 劣等性을 경멸하여 自身이나 自國이 우수하다는 우월감을 가짐으로서 자기 內面의 弱小感이나 無力感, 劣等感을 「카-마」하고 補償하려는 心理的 傾向을 強하게 갖는다. 事實 經濟的 狀態가 좋지 못한 白人일수록 유태인에 대한 嫌惡感과 敵意가 강하다는 研究結果<sup>4)</sup>나, 欲求不滿과 不安感이 강한 사람 일수록 유태인이나 黑人에 대한 편견과 증오심이 강하다는 연구결과<sup>5)</sup> 등은, 모두 自我가 弱하고 不健全할수록 他人(他集團)을 경멸하고 差別할 必要性을 강하게 느낀다는 事實을 立証해 주는 것이다.

第2次大戰後 日本人들이 韓國人을 「第3國人」이라 稱한 것은 日本人들의 韓國人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감을 나타낸 것이지만 反面 그것은 「外人」(歐美人)에 대한 日本人들의 劣等感의 表出이기도 하다.

本稿의 目的은 日本人들의 韓國觀을 究明하거나, 韓·日兩國 關係가 日本의 「저널리즘」에서 流行하는 表現을 빌리면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된 責任의 소재가 주로 日本側에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만족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

그 보다는 韓·日兩國의 健全한 親善·友好 關係를 爲해서는 相互 國民像의 實態를 밝히고 이를 修正하여 偏見없는, 友好的 國民像의 形成이 요구된다는 것과, 그릇된 國民像과 偏見은 修正되어야

하며 또 修正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보아도, 偏見과 差別의 程度가 같은 社會에 있어서도 時代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事實은 社會學에서 말하는 「중오나 欲求不滿의 轉出」行爲가 보편적이거나 不可避한 必然的 現象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偏見은 결코 피할 수 없는 自然現象은 아니다.

「欲求不滿」→「轉出」→「投射」→「合理化」란 人間社會의 心理過程을 분명히 人間의 心理속에 생기기 쉬운 現象이기는 하지만, 「欲求不滿」이나 위기를 解決하는 데에는 「偏見」이나 差別意識을 形成하거나 또는 攻讐的이고 侵略的인 轉出行爲가 유일한 方法도 아니며 最善의 方法도 아님은 分明하다.

政治的인 統治技術로 흔히 使用되고 있는 「Scape Goat」도 결코 問題의 根本的인 解決이 될 수 없는 임시방편적 技術에 불과한 것도 周知하는 바와 같다.

日本의 韓國(人)觀에 나타난 侵略的 사상이나 偏見은 많은경우, 日本内の 矛盾이나 危機를 「不滿의 轉出」이나 侵略에 의해 解決하려는 것으로서 그러한 對象으로 韓國 또는 韓國人을 設定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韓國觀이 韓·日兩國關係 뿐만 아니라 日本自体에도 결코 健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第2次 大戰에 의한 日本의 破局에서도 立証되었다고 할 수 있다.

社會에 不健全한 個人의 충동이나 欲求가 스포츠 등을 통해

사회에 肯定的인 形態로 變化되어 表出되는 것을 「昇華」라 하는 데, 國民(國家)間의 友好·親善에 해로운 攻擊的 衝動이나 偏見은 이를 「昇華」시킬 必要가 있다. 國家間의 참된 友好·親善과 協力關係는 友好的이고 偏見없는 國民像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註>

I.

1. Kenneth E, Boulding,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or Paperback,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1) pp.3 ~ 18 参照
2. Ibid.

II.

1. Kimball young,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1953) Chapters IX, XI and XII 参照
2. 이에 관하여는 Ibid., Chapter IX 参照
3. Newcomb, T.M., Social Psychology, (Dryden, New York., 1950) 参照
4. Kimball young, Social Psychology, (F.S. Crofts and Company, Inc., New York, 1946) Chapter VIII, The Nature of Social Cultural Reality 参照
5. 第2次大戦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日本人들의 韓国觀을 살필 수 있는 与論調査의 資料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最近 日本의 「サンケイ新聞」昭和53年(1978年)12月28日字에 報告

된것과같이 韓·日兩國간의 상호「이미지」를 조사한것도 있고, 또  
 는 日本人들의 對外意識全般에 관한 「對外與論調査」(「朝日新  
 聞」1970年6月과 11月, 1971年5月11日~12日の 조사)도  
 있다. 또한 學者 그룹에 의한 日本人의 人種觀에 관한 調査  
 研究 또는, 我妻洋, 米山俊直의 「偏見の構造」(NHKブックス, 昭和  
 42年)이 있다. 또 아직 未刊으로 있으나, 韓·日兩國의 各  
 分野의 學者들에 의한 「韓·日 커뮤니케이션 겐. 심포지움」  
 (東京側會議 1978年12月20日~21日, 서울側會議 1979年2月)  
 이 열려, 社会学(與論調査), 新聞學(新聞內容分析), 社会心理学  
 (態度變化에 관한 實驗的 研究), 歷史學(教科書에서 본 歷史  
 的 記述의 考察) 등의 諸分野의 研究가 있어, 其中에는 日本人  
 들의 韓國觀의 「스테레오타이프」를 살피는데 參考가 될 資料  
 들이 있다. 이중 「韓·日 커뮤니케이션·겐」에 관한 研究結果  
 는 서울側 會議의 간단한 結果報告와 日本側 與論調査分野의  
 報告(前記「サンケイ新聞」1978年12月28日字와, 「人と日本」  
 1979年9月号所収)가 나와 있을뿐, 나머지 本格的인 報告書는  
 未刊으로 남아있어 參考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6. 我妻洋, 米山俊直共著 「偏見の構造-日本人の人種觀」(NHKブ  
 クス55, 昭和42年). 이 책의 初版本은 1967年刊行이므로, 調  
 査가 實施된것은 그 以前이다. 즉, 1965年 韓·日會談以後  
 1~2年사이의 調査로 보인다.
7. 我妻, 米山 前掲書 pp.117-118에서 옮김.

8. 同上書 p.126.
9. 同上書 p.138의 第7表中에서 뽑음.
10. 이러한 傾向은 인도人, 필립핀人, 인도네시아人 등에 대한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我妻, 米山 前掲書 p.138 第7表 参照
11. 我妻, 米山兩氏의 報告가 「偏見の構造—日本人の人種觀」속에 包含되어 出版된 것이 1967年 이었다.
12. 이 与論 調査는 1978年 12月과 1979年 2月, 東京과 서울에서 各各 교대로 열린 「日·韓 커뮤니케이션·갭」 심포지움의 準備의 一環으로 實施된 것이었다. 本稿에서 사용하고 있는 資料는 其中 日本側 調査 結果(「サンケイ新聞」1978年 12月 28日字와, 辻村明, 「日·韓의 커뮤니케이션·갭」 『人と日本』 1979年 9月号 所収)를 利用하는 것이다. 日本側 調査方法을 소개하면, 1978年 9月 上旬에서 中旬에 걸쳐, 東京과 大阪에서 層化無造作的으로 質問表를 배포하여 實施한 結果 回收된 1,350人의 Samples (東京 788, 大阪 562)에 의한 것이다.
13. 韓·日兩國關係와 같이 복잡한 歴史的, 政治的 關係에 처해 있는 國民사이의 相互「이미지」는 与論 調査가 實施되는 時点의 兩國關係의 분위기에 따라 크게 左右될 수도 있어, 그 与論 調査의 結果가 얼마나 持續性이 있는것인가를 測定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點을 인정하고서라도 역시 無



- 造作的으로 選擇된 一定時期의 與論調査 結果들을 比較하여 보는 것도 하나의 有効한 方法이라고 하겠다.
14. 註 (12)와 같음.
  15. 第4圖는, 我妻, 前掲書 p.133 과, 「サンケイ新聞」 昭和53年 (1978年) 12月28日字의 記事中에서 關係되는 부분을 뽑아 作成한 것이다.
  16. 두개의 調査方法이 다르고 또 두 調査가 같은 對象을 相對로 한 것이 아니므로 두개의 調査結果를 直線的으로 比較하는 데에는 問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無造作的 選擇에 의한 與論調査를 比較하는 相對的인 有用性을 인정한다면 本論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17. 辻村明 「日韓コミュニケーション・ギャップ」, (「人と日本」) 1979年9月号 pp.114~122 所収) p.116의 第4表~第7表에서 作成
  18. 同上
  19. 同上論文 p.118의 第8表에서 옮김.
  20. 同上論文 pp.119~120의 第11表와 第12表에서 옮김.
  21. 同上論文 p.119
  22. 同上論文 p.119의 第12表에서 作成
  23. 同上論文 p.120의 第14表에서 作成
  24. 同上論文 pp.120~122 参照

1. 李用熙 「韓・日關係의 精神史的 問題—邊境文化意識의 葛藤에 대하여—」 「新東亞」, 1970年 8月号 所収
2. 井上清 「日本の歴史」(中) 岩波新書 pp.145 ~ 182 参照
3. 菊田貞雄著 「征韓論の真相と其の影響」(東京 日日新聞社, 大阪毎日新聞社編, 昭和16年) pp.1 ~ 26 및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朝鮮總督府中樞院) pp.298 ~ 300 参照
4. 「木戸日記」 1868年 12月 14日条, 旌田巍「日本と朝鮮」(勁華書房, 東京, 1965) pp.15 ~ 16 에서 再引  
菊田貞雄, 前掲書 p.147 参照
5. 「木戸孝允文書」 第三 pp.232 ff.
6. 田保橋, 前掲書(上) p.302 参照
7. 旌田, 前掲書, p.16 에서 再引
8. 田保橋, 前掲書(上) p.301 및 「征韓論の旧夢談」 p.47 参照
9. 同 上
10. 菊田貞雄, 前掲書 pp.252 ~ 253 및 旌田巍 「日本人の朝鮮觀」(勁華書房, 東京, 1969) p.18 参照
11. 田保橋 前掲書(上) p.305 参照
12. 菊田貞雄, 前掲書 p.253 参照
13. 『岩倉公実記』 (中券)(昭和2年刊) p.20 및 菊田, 前掲書 p.256
14. 西郷隆盛이 스스로 遺韓使節이 되는 것에 生命을 걸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明治6年 8月17日 板垣退助에게 보낸 書翰속에

서 “使節을 暴殺할 것은 (朝鮮側이 …… 引用者) 틀림없는 일”  
云云한 것으로 보아 明白하다. (「大西郷全集」第2卷 p.755 参照)

15. 黒竜会編 「西南記伝」(上卷)-附録 p.3 의 「桐野利秋実話」
16. 「大西郷全集」第2卷 p.753 및 「国憲編纂起源附録」(「明治文化全集 雑史編」) p.424 参照
17. 이러한 観点에서의 研究로는 例컨대 遠山茂樹 「征韓論, 自由民權論, 封建論」 明治史研究叢書 第二期 第4卷 「近代思想의 形成」所収 pp.35-119 参照
18. 升味準之輔 「日本政党史論」(第1卷)(東京大学出版会, 1965) p.138 参照
19. 遠山 前掲書 p.49 参照
20. 前掲 「岩倉公実記」(下) pp.80 ~ 82
21. 升味準之輔 「征韓論以後」 「思想」 1965, 12月号 所収 参照
22. 木戸日記 明治6年9月3日条(「木戸孝允日記」第2, p.420) 및 井上清 前掲書(中) pp.145 ~ 148, 菊田, 前掲書 pp.170 ~ 171 参照
23. 「木戸孝允文書」 第8 pp.129 ff 의 「征韓·征台速行의 反对意見書」 参照
24. 「木戸孝允文書」 第5卷 p.238 의 明治7年4月5日, 三条実美宛 木戸善翰 参照
25. Dickins, E.V. and Lane Poole, S., The Life of Sir Harry Parkes, Vol, ii, p.187 및 J.R.Black, Young Japan Vol.

- ii. p. 426 参照
26. 遠山, 前掲書, p. 50
  27. 木戸日記 明治5年7月29日条 및 震檀学会論 「韓国史」(近世編) pp. 398 ~ 401 参照
  28. 예를 들면 「福沢諭吉伝」(第3卷)(岩波書店, 明治7年) pp. 279 ~ 280 의 意見 参照
  29. 이 점에 관하여서는 岡 義武 「明治初期の自由民権論者の眼口 影響にたる當時の国際情勢」 「明治史研究叢書」 第4卷御茶, 水書房刊 및 羽鳥卓也 「自由民権象の精神」 「近世日本社会史研究」(未来社, 1965) 등 参照
  30. 羽鳥卓也 前掲書, p. 32
  31. 이 점에 관하여는 遠山茂樹 「明治維新」(岩波新書)中, 第5章「明治維新の終幕」 및 羽鳥卓也 前掲書 参照
  32. 遠山茂樹, 「征韓論, 自由民権論, 封建論」 p. 76.
  33. 旌田巍, 前掲「日本人の朝鮮觀」 p. 21 에서 再引
  34. 「近時評論」 332号 参照
  35. 同上, 203号 参照
  36. 遠山茂樹 「自由民権運動と大陸問題」 「世界」 昭和25年(1949年)6月号 参照
  37. 升味準之輔 前掲書 p. 218
  38. 「日署新聞」 明治13年8月10日字 論說「朝鮮国公使將=着セン  
トス」

39. 同上新聞, 明治 13 年 9 月 28 日字論說
40. 同上新聞論說 「清国関撃最後, 目的」
41. 「近時評論」 明治 11 年 1 月 18 日字
42. 同上新聞, 明治 14 年 1 月 3 日字
43. 同上新聞 明治 9 年 6 月 24 日字
44. 「郵便報告新聞」 明治 14 年 3 月 15 日字 論說「日本帝国, 独立  
→保全スルハ唯一策アルノミ」
45. 「近時評論」 明治 15 年 8 月 23 日字 参照
46. 旌田巍, 前掲書 p.23
47. 遠山茂樹 前掲 「自由民権運動と大陸問題」 p.29
48. 「自由新聞」 明治 15 年 8 月 1 日字(28号) 2日字(29号)  
社説 「朝鮮, 変報」(一)(=)
49. 同上新聞, 明治 15 年 8 月 2 日字 「征韓論」 「奥宮健之라는 者  
는 그후 1884 年 名百屋事件이란것을 일으켜 無期刑에 処하  
여졌으며 1910 年の 大逆事件에도 連座하여 死刑에 処해진  
人物이라고 한다.
50. 同上 「征韓論」 参照
51. 同上新聞 34号(明治 15 年 8 月 8 日字) 「朝鮮ニ対スル政略ヲ  
論ズ」(一) 参照
52. 同上新聞 29号 「朝鮮, 変報」(=) 参照
53. 同上新聞 明治 17 年(1884) 4 月 11 日, 13 日, 16 日, 18 日,  
20 日字 社説参照

54. 同上新聞 34号 「朝鮮=對スル政略ヲ論ズ」(一) 및 29号「朝鮮, 變報」(=)
55. 金榮作 「韓・日ナショナリズムの相剋」 「新韓學報」第16号  
(新韓學術研究会, 東京, 1973) 所収 参照
56. 例를 들면 内山正忠 「福沢諭吉の外交論」 「慶応大学百年記念論文集」第2部 所収의 見解
57. 丸山眞男氏에 의한 「福沢諭吉選集」第4卷의 「解題」
58. 「時事小言」第4編, 「國權之事」 「福沢諭吉選集」第4卷 p.272
59. 石河幹明, 「福沢諭吉伝」第3卷(岩波書店) p.289
60. 同上書 第3卷 pp.294 ~ 297
61. 「福沢諭吉全集」第10卷所収, 「脱亜論」
62. 同上 「兵論」
63. 同上 「朝鮮人民の爲に其國の滅亡を賀す」
64. 竹内好 「アゾア主義の展望」, 竹内好編集・解説 「アゾア主義」  
(「現代日本思想大系」9)(筑摩書房, 東京, 1963) 所収 p.37
65. 同上書, p.36
66. 旌田巍 「大東合邦論と樽井藤吉」, 「樽井藤吉の朝鮮觀」 및 「日本人の朝鮮觀」  
中(4) 「大東合邦論と日韓合邦論」등의 前掲 「日本人の朝鮮觀」  
所収 論文
67. 樽井藤吉著 「櫻刻 大東合邦論」 (長陵書林, 東京, 昭和50年  
(1975年)) p.206.
68. 同上書, 「凡例」参照

69. 同上書 「国号釈義」参照. 「大東合邦論」의 現代日本語訳文(발  
 췌)은, 竹内好 前掲 「アジア主義」에 수록되어 있음.
70. 同上書 「聯合方法」 p.127. (傍点은 原文)
71. 同上 (傍点은 引用者)
72. 同上書 「合同利害」 p.122
73. 同上書 「日本情況」 p.94 (傍点은 原文)
74. 同上 参照
75. 同上書 「朝鮮情況」 p.78
76. 同上書 「日韓古今之交涉」 pp.101 ~ 102
77. 旌田, 前掲論文들 参照
78. 樽井의 經歷에 대하여는 黒竜会編 「東亞先覚志士紀伝」과 岡  
 山監輔撰 「大東合邦論序」 前掲 「複製大東合邦論」所収 및  
 田中惣五郎 「東洋社会党考」등 参照
79. 樽井藤吉, 前掲書 「再刊要旨」 p.189
80. 同上書 「再刊要旨」 p.190
81. 同上書 「再刊要旨」 pp.189 ~ 190
82. 同上書 「聯合方法」 p.127

#### IV.

1. 旌田巍 前掲書 pp.12 ~ 16 参照
2. 李用熙 前掲論文 pp.123 ~ 124 参照

3. Adorno, T.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J., Sanford, R. 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Harper and Brothers, 1950) 参照
4. Campbell, A. "Factor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Jew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Holt, 1952) pp. 603 ~ 612 参照
5. Bettelheim, B & Janowitz, M. "Ethnic tolerance: a function of social & personal control"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Holt, 1952) pp. 593 ~ 602 参照



Résumé

JAPANESE INTELLECTUAL'S IMAGE OF KOREA  
IN HISTORICAL PERSPECTIVE

Kim Young Jak

Some of the Japanese traditional images of Korea, such as that in the Edo period, paid reverence and showed good feelings towards Korean people and their culture. It was a manifestation of the so-called "sunflower phenomenon" that Japan, the most peripheral country of the Confucian civilization, paid reverence to Korea which had been a more civilized country in terms of the traditional Confucian civilization.

There had already been formed, though, even from the time of their ancient state building, a sense of a superiority complex and a looking down upon Korea among the Japanese. The problem with this Japanese image of Korea lay in the fact that it not merely fostered a sense of superiority complex towards Korea but also inspired and justified their invasion of Korea. This tendency became much more conspicuous in the later part of the Edo period by the Japanese classical scholars.

After the Meiji Restoration there was added another type of Japanese superiority complex towards Korea. This was that the Japanese now believed that they were ahead of Korea even in terms of civilization. This was a different type of superiority complex from the traditional one which was mainly based on the fictions of the legends and founding ideology of her ancient state. Before the Meiji era, the Japanese superiority complex towards Korea was mainly formed in terms of her military strength, and there was a sense of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superiority and cultural inferiority in the image of her relationship with Korea. After the Meiji era, though, Japan became free from that sense of conflict.

"CHUNG HAN-RON"( 征韓論), the argument for the policy of conquering Korea, was the first attitude of Japan towards Korea after Japan emerged as a modern state. The logic of "CHUNG HAN-RON" was to redirect the dissatisfied SAMURAI's minds away from the thought of raising a rebellion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towards outside and at the same time create a chance for Japan to extend its national power abroad. Korea was only thought to be the target of Japan's invasion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above-mentioned goals. The image of

Korea held by the so-called "anti-CHUNG HAN-RON" was essentially not different from that of the group that insisted on conquering Korea.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lay not in their essential policy towards and images of Korea but only in the time schedule as to when they should make an invasion of Korea. In that sens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groups was only a matter of an internal power struggle as to which side would take the initiative in conquering Korea.

Secondly the image of Korea held by the advocates of "People's Rights" in Japan was also the same with that of those who asserted "CHUNG HAN-RON". This was quite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fact that the movement toward "People's Rights" was begun by the very group of people that had originally raised the dispute on "CHUNG HAN" after they had been defeated in a power struggle within the Meiji governmen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eople's Rights' movement", there seemed to develop a feeling of solidarity with Korea within the left faction of the movement. This feeling of solidarity was, though, not free from the desire to extend Japan's national power abroad, that is, to conquer Korea, accordingly it ended as a passing phenomenon. When the People's

Rights' movement itself began to decline after 1881 and especially when an anti-Japanese rebellion occurred in Seoul in 1882, even the leftists wingers of the movement lost their feeling of solidarity with Korea and adopted an attitude that supported the idea of Japan's invading Korea.

Thirdly, Fukuzawa Yukichi was the most representative forerunner of Japan's enlightenment and civilization, who laid the foundations of various aspects of the modern Japanese consciousness including their attitude towards foreign countries. His image of and attitude towards Korea and China are revealed most intensively in his argument of "TAL A-Ron" (脱亜論), literally "Removal from Asia" which was published in 1885. Yet, from many years before 1885, Fukuzawa had been an advocate of Japan's expansionism, who had not seen Korea and China as independent and equal as Japan but viewed them as countries "to be protected by the sword and led by the pen of Japan". In addition, Fukuzawa's intention when he contacted with Korean Progressive Party members like Kim, Ok-Kyun, was, according to his own words, to support the Japanese government's military and political policy of expansionism with "the power of the pen" from his position outside of political office.

In the article, "TAL A-RON", he proclaimed Korea and China to be "bad companion" and maintained that Japan should refuse those "bad companions" in order to get rid of receiving a bad reputation from the Western countries. At the same time he went further to argue that Japan should punish Korea and China following the examples of the Western imperialist countries. Fukuzawa even wrote, without hesitation, that he would congratulate the dissolving of Korea under the protection of a great civilized country. Thus, Fukuzawa's "TAL A-RON" was merely an argument to refuse companionship with Asian countries in order for Japan to become like the Western countries but was more essentially an argument to invade Asian countries and justify it under the veil of civilization.

Finally, Tarui Fujiyoshi was another distinguished figure who exercised a great influence theoretically upon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his book "DAI DONG HAP BANG-Ron"(大東合邦論) which was first published in 1893, Tarui, quite contrary to Fukuzawa, presented an argument of "solidarity with Asian countries" and building a "DAI DONG" nation, literally Great East Nation, by annexing Japan and Korea with equal rights.

It was, though, only a superficial feeling of solidarity whose basic purpose was to conquer Korea whe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Japan would allow her to do so. Tarui's personal background of activities proves that he had been an advocate of "CHUNG HAN-RON" even when he was preparing the first edition of "DAI DONG HAP BANG-RON".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book and Tarui's own intention of conquering Korea, before everything else, were brought to light when he himself denied his original assertion of equal annexation in the second edition of his book in 1910.

Although the different types of the Japanese images of Korea after Meiji era were each based upon different grounds of argument, they all reached the same conclusion in insisting upon conquering Korea. They have generally been that which view Korea and its people as implite or uncivilized and thereby encourage an invasion of Korea or justify it. The fact that the Japanese stereotype image of Korea and its people is totally a negative one even in the contemporary post war period has much to do with the above-mentioned traditional images of Korea.

The soci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images of and attitudes towards Korea lie in the fact that they have chosen Korea as an object for "transferring social psychological frustration" and have made Korea a target for invasion in order to overcome political crises or to expand national powers. In other words, Korea and its people have been "scape goats" for Japan, much like the Jews for the Germans under the Nazi regime, or the blacks for the whites in the southern part of America.

It has already been shown by many scholarly case studies that the stronger the tendency to transfer frustration to racial(or nation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e more unsound the person or the society. In this sense the Japanese images of and attitudes towards Korea can be said to represent the social psychological unsoundness of the Japanese and their society. Japanes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owards Koreans, as seen in the case when they call Koreans "the third nationality" after their defeat in World War II, have often been no more than a compensation for their inferiority complex towards Western countries.

It is an urgent problem to establish mutually favorable national images free fro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order to strengthen friendly relations and re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